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s When We Die?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s When We Die?

발 행 | 2021년 5월 20일
지은이 | 앤서니 버저드Anthony Buzzard
옮긴이 | 정형철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 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979-11-372-4509-9
www.bookk.co.kr
ⓒ Anthony Buzzard/정형철 2021

본 책은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역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적 견해

성경적 믿음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용 소책자

앤서니 버저드 지음

Anthony F. Buzzard MA (Oxon.), MATh.

정형철 옮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 5:28-29).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쉽

www.restorationfellowship.org

© 1986, 2002

저자 **앤서니 버저드**Anthony Buzzard, MA (Oxon), MA Th는 유니테리언 기독교 신학자이며 애틀란타 바이블 칼리지Atlanta Bible College의 교수이다. 처치 오브 갓 제너럴 컨퍼런스Church of God General Conference와 제휴된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쉽Restoration Fellowship을 1981년에 설립했고 "포커스 온 더 킹덤"Focus on the Kingdom이라는 제목의 뉴스레터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 버저드의 강의 영상과 설교를 YouTube를 통해 볼 수 있다.

역자 **정형철**Hyung-Chul Chung, Ph.D.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근대영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University of Georgia에서 비교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일러두기

* 원문에는 저자의 주가 미주endnotes로 책 뒤에 일괄 정리되어 있지만 편의상 하주footnotes로 처리했다.
* 역주translator's notes는 ①, ② ③... 과 같은 숫자로 표시하고 본문 속에 삽입했다.
* 원문에 이탤릭italic체로 된 강조 부분은 볼드bold체로 대체했다.
* 한국어 성경 구절들은『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독일성서공회 해설』(대한성서공회 2004)에서 인용했다.

목차

제 1 장 성서적 원근법의 회복-/9

불멸에 대한 성경적 견해

제 2 장 인간에 대한 성경적 교리-/25

플라톤적 장벽

“영혼”의 성경적 개념

핵심 요점

성경에서의 “영”

제 3 장 죽은 자들의 장소와 상태-/41

죽음의 잠

나사로의 부활

틴데일의 항의

예수의 죽음

인간에 대한 합당한 성경적 교리의 필요성

다른 성경 학자들

제 4 장 대중적 신학의 전통적 요새-/57

심각한 어려움

화해할 수 없는 모순

전통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열쇠

성경에 대한 부당한 취급
바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 종말론의 통일성
고린도 후서 5 장에 대한 세부적 설명
빌립보서 1:21-23
제 5 장 부자와 나사로와 십자가 위의 도둑-/79
비성경적 전제들
메시아적 연회
시적 이미저리?
십자가 위의 도둑
요한복음 11:26
부활하기 전에 살아있는가?
제 6 장 하데스와 사도적 신조-/93
플라톤의 승리
제 7 장 고대와 현대 학자들의 증언-/99
이레네우스와 저스틴 마터의 잊혀진 정통
이레네우스: 이단 논박
저스틴 마터: 트리포와의 대화
학자들의 증언
호소
학자들의 말-/113
옮긴이의 말-/115

제1장
성서적 원근법의 회복

우리시대의 세속적인 사람들이 종교의 어떤 분야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문제인데, 단지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대답해 주기 위한 것일지라도 그 문제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1979 년 12 월호 『나우』*Now* 잡지가 이른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영국국교 교회 참석자들의 50%는 내세 afterlife[①]를 믿지 않는다는 놀랄만한 통계를 인용한 이래로 무덤 너머 삶의 현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① "내세"(來世)는 넓은 뜻에서의 "죽음 이후의 삶"(後世)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시대의 전통적인 기독교인의 내세관은 신체적 몸의 죽음 이후에도 개인의 아이덴티티의 본질적 부분 혹은 영혼 soul 이 존속된다고 보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책의 저자 버저드는 영혼의 불멸성을 부정한다. 그는 인간이 죽음 직후에 탈신체화된 disembodied 상태로 의식을 지닌 채 이른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견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부활 전에는 의인이

든 악인이든 의식이 없는, 비유적으로 단지 "잠들어" 있는, 상태로 무덤 속에 있다고 본다. 부활에 대해서 톰 라이트N.T.Wright 은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 직후에 어떤 상태로 들어가든지 그 이후에 오는 새로운 육체적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life after lfie after death]을 일컫는 말이었다'(『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Surprised by Hope* 양혜원 역 p.241)고 말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가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부조리한 모순이 된다. 사실 충성스런 신자들이 미래에 부활될 것이라는 전망을 의심하는 경향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했던 가장 강력한 말들 중 일부를 발언하게 되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3-8, 11-19).

이 구절이 우리시대의 많은 신학적 글에서는 애석하게도 결여된 신념의 무게와 권위의 울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토대 그 자체를 형성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 이후에 살아 계신 모습으로 믿을만한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의 절대적 정당성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시지 않았다고 암시하는 것은 전체 기독교의 모험적 사업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심각한 일은 사도들이 위험한 거짓을 전파했다고 암암리에 비난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와 함께 먹고 마신”(사도행전 10:41) 사람들이 목격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죽음 이후에 다시 살거나,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까지 생존해 있게 된다면 실제로 죽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과거의 사실과 신자들의 부활이라는 미래의 사실이 없는 기독교라는 관념은 궁극적인 부조리였을 것이다. 모든 신약성경 필자들은 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공유한다.

신약성경 필자들의 마음속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이 “마지막

일들”의 교리 (종말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평균적인 교회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낯설다. 저명한 신약성경 학자 로빈슨J.A.T. Robinson은 신약성경의 종말론적 계획이 교회 진영 내부로부터 “그렇게 심각한 저항 없이 조용히 제거되었다. ... 오늘날의 현대 사유에서 마지막 일들에 대한 기독교 교리는 죽었고 심지어 아무도 그것을 파묻어 버리려고 애쓰지도 않았다”고 진술한다 (『결국, 하나님』*In the End, God*, p.27).

이것은 놀라운 자백이다. 그것은 원래 신앙의 필수 요소가 삭제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 아무도 그것의 손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것 같다. 사실은 사도적 기독교는 “마지막 때”의 분명한 교리가 없다면 성립될 수 없다. 신약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실 순간을 지향한다. 우리시대의 종교는,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신자가 죽음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천국에서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이른바 “중간 상태”intermediate state[②]에서의 개인의 생존을 선호하여 “마지막” 때의 부활이라는 중심적 교리가 삭제될 때 신약성경 기독교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부활이 기독교의 주요 전제이기 때문이다.

② 개인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이 처하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 신자의 영혼이 정화되기 위해 가는 “연옥”purgatory이 중간 상태의 묘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죽음 직후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기 이전에 처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잠정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소책자의 저자 버저드는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부정한다. 버저드의 관점은『한국조직신학논총』제 46 호 2016 년 (pp.135-174)에서 제해종이 "죽음, 중간 상태 그리고 부활 문제를 중심으로 재평가해 본 기독교의 종말론"Christian Eschatology Re-evaluated on the Issues of Death, the Intermediate State, and Resurrection 에서 "전통적 기독교는 인간이 죽음 후 천국이나 지옥으로 곧바로 간다고 믿어왔지만, 이것은 성서에 기초한 사상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을 때, 그의 몸은 죽어도 그의 영혼은 생존한다고 가르치는 헬라의 영혼불멸사상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관점이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그것이 부활에 부여하는 절대적인 중요성에 있다. 바로 이것이 미래의 삶에 대한 우리시대의 견해에 의해 제시된 문제의 핵심이다. 성경의 교사들과 설교자들이 진지하게 숙고해야 하는 문제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얼마나 멀리 버렸는가 하는 것이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은 비록 그것이 부활을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활과 희미한 연결만 유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신약성경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본질적으로 간단하고 일관된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재림(파루시아 Parousia)과 관련된 가르침의 맥락에서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주제를 분리하는 것은 신약성경의 견지에서는 불가능하며 그 주제들 사이의 연결을 보지 못하는 실패는 필연적으로 초기 기독교의 관점에 대한 오해로 이어진다.

그 문제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신약성경은 대중적인 전통과는 대조적으로 간결한 명제, 즉 모든 죽은 자들은 실제로 죽었고 의식을 잃고 "잠 들어서" 미래 역사의 특정 순간에 일어날 생명으로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명제를 제공한다. 전통 신학은 신약성경의 집단적 종말론을 개인적 종말론으로 대체했고, 죽음의 순간을 강조함으로써 부활이라는 신약성경의 중심적 교리는 거의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세상을 떠난 신자들이 지금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무덤에서 부활할 그들의 미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죽은 악한 사람들이 이미 벌을 받고 있다면, 심판받기 위한 미래의 부활은 무슨 요점이 있는가? 신약성경은 이러한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집단적 경험이 될 부활된 생명으로의 "깨어남"만을 다루는데, 그 "깨어남"을 통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미래의 동일한 순간에 동시에 참여한다. 사실 신약성경은 두 가지 부활을 가르친다. 첫 번째는 죽은 기독교인들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나머지 죽은 사람들"이 천년이 끝날 때 부활되는 것이다 (계시록 20:1-6; 고린도전서 15:23).

유감스럽게도 신약성경은 완전히 다른 계획을 염두에 둔 사람들에 의해 해석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 인간을 몸과 그 몸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의식 있는 영혼의 조합으로 보는 가설을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평균적인 독자는 죽음의 순간에 즉시 의식을 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대중적인 비성경적 관념을 지닌 채 신약성경을 읽게 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로빈슨은 "성경에서 천국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적지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결국, 하나님』*In the*

End, God, p. 105)고 바르게 진술한다.

죽음과 "마지막 일"의 교리에 관한 원래 기독교적 윤곽을 다시 찾게 되면, 신약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은 사도적 정신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사도적 정신이 그리스도 자신의 정신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식하도록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참으로 바울의 글이 진정한 기독교적 견해를 나타낸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이 바울의 동시대 사람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그 주제에 대한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의 견해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강조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은 파루시아 때의 부활이라는 원근법인데, 이것은 전통적 믿음에 의해 거의 제거된 상태이다.

지금까지 많이 진척된 일반적인 명제를 지지하는, 로빈슨의 책『결국, 하나님』*In the End, God* 으로부터 좀 더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죽은 자들의 상태와 "마지막 일들"에 대한 신약성경의 사고방식은 우리시대의 믿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이 사실은 설교단에 도달하지 못했고 (적어도 영국국교에서는) 신도석도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신학은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한다.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은,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의 사실과 죽음의 순간에 중점을 둔다. 그는 자신이 죽음 후에도 살아있을지 어떤 형태로 살아남을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가 "저편에서" [저승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천국은 어떤 모습일지, 지옥 같은 곳이 있는지 등등이다. 그러나 이 전망이 전체 신약성경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낯선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충격으로 다가오겠지만,

필경 그 전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다 (『결국, 하나님』*In the End, God*, p. 42).

독자는 아마도 이것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공정한 진술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들었을 때를 기억한다. 그 당시 나는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한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 그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1세기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로빈슨 박사의 말, 즉 "기독교가 필경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말의 중요성은 결코 과대평가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전통적인 사고와 신약성경의 가르침은 극과 극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암시하고, 기독교 전체에서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의 입장은 무엇인가?

신약성경에서 희망과 관심은 전혀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파루시아, 즉 자신의 왕국의 영광 속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중심으로 수렴된다. 관심과 기대의 중심은 계속 신약성경을 관통하여 인자의 날과 개조된 땅에서의 왕국의 승리에 초점을 맞춘다.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기도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는 주 예수님의 통치이고, 무덤 그 너머의 전망이 아니다. 희망은 사회적이었고 역사적이었다.

그러나 일찍이 서기 2세기에 중력의 중심에서의 변화가 야기되고 중세 시대에 **매우 다른 교리로** 인도하게 되었다. 원시 기독교적 사유에서 개인의 사망 순간은 전적으로 주님의 위대한 날과 최후의 심판에 종속되었는데, 후기의 사유에서는 죽

음의 순간이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결국, 하나님』*In the End, God*, pp. 42, 43, 강조 추가).

중요한 점은 사고의 급격한 변화가 사도적 신앙을 기록한 신약성경의 문서가 완료되자마자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매우 다른 교리"로 이어진 변화의 이유는 영혼의 성격에 대한 헬레닉 Hellenic (그리스적) 관념의 도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그것은 영혼의 본질에 대한 히브리적, 성경적 견해와는 대단히 대조적인 것이다. 우리시대 학생은 아마도 전혀 의문을 품지도 않은 채로 비성경적인 그리스 관점을 자신이 물려받았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믿음의 바탕을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두기를 원하면 이 그리스의 견해는 배제해야 한다. 실제로, 신약성경의 페이지에는 비록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 숭배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숭배를 헛된 것으로 만들 [잘못된] 교리적 사상의 도입을 반대하는 엄숙한 경고가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마태복음 15:9).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마태복음 15:6).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했지만 자신들의 활동이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 결코 인정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

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태복음 7:22, 23). 독자는 이러한 불편한 경고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불멸에 대한 성경적 견해

착한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으로 가고 나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간다는 대중적 관념은 인간은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혼은 정의상 죽을 수 없다는 그리스적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적 관점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멸하지 않은 존재이다. 과연, "영혼"이라는 용어는 "살아있는 존재" 또는 죽게 되는 "사람"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사람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1] 동물도 영혼이라고 묘사되고, 일반적으로 영혼은 죽을 수 있다 (민수기 6:6, 원본 히브리어). 히브리적 사유에서 영혼은 필멸이고 불멸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요지를 설명하기 위한 우리의 주제를 소개하려면 다음 인용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에스겔 18:4, 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로마서 2: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

1 사람이 "생명" 또는 "영혼"을 가지는 것도 또한 사실이지만 이곳에서의 "영혼"은 "불멸의 영혼"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생으로 하시고."

디모데전서 6:15, 16: "오직 그[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디모데후서 1:10: "그[그리스도]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러한 가르침은 로빈슨이 말했듯이 "신학적으로 평범하지만 놀랍도록 낯설다 ...영혼불멸설이 기독교 신앙의 신조라는 것이 여전히 거의 보편적으로 소중히 여겨지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영혼불멸설은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성경적 교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신학적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In the End, God,* p. 91, 필자 강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과 일치하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아이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언어로 죽은 자의 상태를 묘사한다.

시편 13:3: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 6:5: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시편 146: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전도서 9:5: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며 ..."

후기 구약성경 사유에서는 부활의 교리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항상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죽음의 잠으로부터 부활되는

것이고, 그것은 “끝”에 발생하게 될 종말론적 사건이다.

다니엘 12: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약성경은 동일한 희망을 더 크게 강조하면서 주장한다.

요한복음 5:28, 29: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전서 15:22, 23: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관점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포함하여 실제로 구약성경의 모든 영웅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약성경의 진술이다,

히브리서 11:13, 40: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2:29, 34: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

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베드로).

그리고 이 진술과 대조적으로

히브리서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쓴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은 이미 "천국에서" 그들의 보상을 받았다고 믿을 수 있었다고 본다면 그것은 말의 의미에 대한 자연스런 이해에 위배된다. 실제로 그리스도 자신은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3:13)고 말했다.[2] 신약성경에 따르면, 단지 그리스도만이 지금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린도전서 15:20). 신약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죽은 자들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완곡하게) 시간의 흐름을 모르고 의식을 잃고 쉬면서 신약성경 전체가 향한 위대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하나의 은유이다. 즉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린도전서 15:52).

---

2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천국으로의 상승은 지혜의 신성한 비밀에 참여하는 것을 대신 뜻할 수도 있다, 신명기 30:12과 비교.

미래에 죽음의 잠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으로 보는 부활에 대한 견해만으로도 신약성경의 글에 부합되며, 그것은 다니엘서 12:2 에서의 부활에 관한 고전적인 언급에 기초한 견해이다. 그 구절에는 "무의식적 잠에 이어 기쁨 또는 슬픔으로의 부활이 따른다"(『성 바울의 신학』*The Theology of St Paul*, D.E.H. Whiteley, p.266)라는 내세에 대한 묘사가 있다. 죽음의 순간에 영혼이 몸에서 떠난다는 그리스적 생각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기획과는 단호한 대조를 이룬다. 기독교 사유 속으로 그러한 사상이 도입됨으로써 대단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기독교인 각자가 (비록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단지 미래에 그 자신의 모든 동료들과 함께 무덤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지는 것인데, 죽음의 순간에 즉시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 방식이 어떤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가? 히브리 체계와 그리스 체계를 화해시키려는 시도는 영혼은 이미 "살아있다"는 것을 함축하면서 다만 몸이 부활되는 것이라는 관념으로 인도했는데, 하지만 그런 언어는 매우 비성경적이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몸 또는 육체만의 부활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윗 그 자신, 즉 그의 전인격체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죽은 자들은 그들의 몸만이 아니라 전인격체가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 ("묘지"를 뜻하는 cemetery 는 "잠자는 곳"이라는 그리스어 *koimeterion* 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 참조) 속에서 잠들어 있다고 명확히 언급했다. 신약성경이 설교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지 죽은 **몸들**의 부활이 아니다. 요크 York 전 학장은 "교회를 괴롭힌 대부분의 왜곡과 불화는 기독교 공동체의 종파들과 파벌들이 신약성경에 없는 말들을 사용

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에서 발생했다" (나이젤 터너 Nigel Turner 가 『기독교 단어들』*Christian Words* 에서 인용한 것. p.viii)고 쓰고 있다.

충실한 죽은 자들의 미래 부활과 파루시아까지 살아남은 충실한 사람들의 변형에 대한 신약성경의 기대를 가장 완전하게 설명한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에서 진술되고 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영어원서에서는] NEB 버전).

이 구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파루시아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발언은 바울이 죽은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지복至福"bliss 속에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는 전제에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그는 미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으로 죽은 사람들은 파멸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죽은 사람

이 **부활과는 별개로** 중간 상태에서 불멸성 또는 의식을 획득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다. 바울의 견해는 마지막 날에 부활을 통해서만 불멸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고려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구약성경의 정의, 즉 "영혼"soul 과 "영"spirit 이라는 단어들에 대한 구약성경의 사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리스 플라톤 체계로부터 가져온 외래의 정의들이 아닌, 히브리 사상 세계에 부합되는 그 용어들에 대한 신약성경의 정의에 대해 접근해 볼 수 있게 된다.

제 2 장
인간에 대한 성경적 교리

인간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독자와 함께 조사할 때 우리는 신체적 몸 안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 "영"spirit 또는 "영혼"soul 속에 인간의 본질적인 인격성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관념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은 의식이 있는 영혼이 다른 영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아이들이 질문할 때 부모들의 전형적인 대답을 위한 가이드는 죽음을 새로운 장소로 "이사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즉 죽음은 참 사람[본질적인 인격성]이 탈출할 수 있도록 현재 몸의 부담을 벗어던지는 것, 그리고 무덤은 우리의 임시 옷을 벗어 놓는 휴대품 보관소로 여겨지게 된다.

영국국교 교회 교구목사의 부인인 제레미 휴즈 Jeremie Hughes 가 쓴 『아이들이 묻는 질문들』*Questions Children Ask* 에서 여섯 살짜리 아이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는다. 부모는 "죽으면 몸은 이제 우리에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몸을 버리고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 진정

한 너와 나를, 진정한 우리 자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p. 47)고 대답하도록 충고받는다. 그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인지 아닌지에 대해 살펴볼 시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

플라톤적 장벽

이제 그러한 언어가 신약성경의 한 구절 (고린도후서 5:1-8)과의 유사성이 약간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플라톤 철학의 언어와 훨씬 더 많이 닮았다. 사실 그것은 성서 필자들의 영역을 벗어난 사유에서 파생된, 인간에 대한 정의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몸과 영혼을 조화롭게 단결시키기"라는 문구는 죽음을 영혼과 몸의 분리로 보는,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를 확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의 근원은 무엇인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서 필자들은 몸을 떠난 후의 영혼이라는, 분리가 가능한 의식적 존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대중 설교에서 "영혼"과 "영"이라는 단어는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죽음 이후에도, 비록 몸은 없지만 여전히 의식을 완전하게 지닌 채 살아남는 것으로 상정되는 실제 인간의 일부를 지칭한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신약성경은 영혼과 영을 혼동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몸과는 별개로 의식적인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제시하지도 않는다. "영혼"과 "영"이라는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에서 그것들에게 부여된 의미를 신약성경에서도 유지한다. (다만 신약성경에서 "영"은 "성령"Holy Spirit 이 부여한 더 높은 생명과 더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지만.)

영혼을 죽음에서 살아남은 진짜 인간으로 보는, 영혼에 대한 플라톤적 견해는 진정한 기독교적 인간관의 이해에 끊임없는 장벽을 만든다. 더욱이 그 그리스적 개념은 예수님과 모든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중심 교리를 심각하게 방해한다. 이 사실은 신학 분야의 저자들에 의해 명확하게 언급되었고 계속 진술되고 있지만 그들의 항의는 무시당하는 것 같다. 인간에 대한 전통적 사고방식에 대한 우리의 집착, 특히 죽음과 관련하여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사도들이 공유한 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성경 이후의 그리스적 영향에 의해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주입된 전제들을 버려야 하고 인간에 대한 진정한 성경적 교리를 새롭게 살펴보아야 한다.

저명한 스위스 신학자인 오스카 쿨먼 Oscar Cullmann 은 "영혼 불멸에 대한 그리스의 믿음을 원시 기독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널리 퍼진 실수"(『부활 혹은 불멸』*Immortality of Soul or Resurrection of the Dead?* p.6)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영혼의 불멸성이 널리 받아들여진 관념이지만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거나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함으로써 은폐하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다. 이것은 매우 솔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같은 책, p.15)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찰에 대해 우리는 진심으로 동의한다. 미국인 신학자 래드 G.E Ladd 는 "불멸성에 대한 성경적 희망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진술한다. 그는 이 개념은

”그리스적 인간관과 첨예한 대조를 이룬다. 인간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 개념들은 플라톤적 사고에서 비롯되며 흔히 기독교 신학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다. 그것은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보는 이원론이다. 영혼은 불멸이며 ‘구원’은 죽음의 순간 현상적 세계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영혼이 탈주하여 영원한 실재의 세계에서 성취를 찾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죽음에 대한 이러한 견해와는 뚜렷하게 대조적으로 래드 박사는 “바울은 몸과 분리되는 영혼의 구원을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 인간의 영혼도 영도 죽음에서 살아남는 불멸의 존재로 간주되지 않는다. 성경 단어 ‘영혼’은 실제로 인칭 대명사와 거의 동의어이다.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불멸의 영혼이라는 생각은 없다**”(『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p.45, 필자의 강조)고 지적한다.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 신앙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나이트 G.A.F. Knight 도 그의 책, 『율법과 은총』 *Law and Grace* (pp. 78, 19)에서 설명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리스의 철학에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이 의존한다. 이것의 예는 영혼불멸성에 대한 기독교인들 사이의 지배적인 믿음이다.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 대해 절망한다. 그들은 고통과 좌절이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절망한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무게로부터 그들의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추구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그것을 육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축복을 그들의 영혼이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부른다. ... 물론 초대

교회의 성경인 구약성경에는 "영혼"에 대한 현대적 (또는 고대 그리스) 관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 현대 단어를 성 바울의 그리스어 "프쉬케"*psyche*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플라톤이 그 단어로 의미한 바를 표현하지 않았고 이사야와 예수가 그 단어로 의미하는 바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대중적인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강조는 필자의 것).

장례식에서 끊임없이 듣게 되는 위안의 메시지, 즉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이미 "천국에" 있다고 하는 말은 진실로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불릴 수는 없는, 그리스 철학의 중심적 교리를 재 확증한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다.

"영혼"의 성경적 개념

이제 우리는 "영혼"이라는 성경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 용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죽음에 처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조건이 될 것이다.

성서 인류학의 기초는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living soul]이 된지라"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창조는 두 단계로 설명된다. 조직된 몸은 아직 생명이 없지만, 그래도 "인간," 즉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활력이 없지만 그 창조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것

을 우리는 강조한다. 바울이 말했듯이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고린도전서 15:47). 그의 생명의 숨결이 그의 코 안으로 불어넣어졌을 때 그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영혼 (네페쉬 *nephesh*)이 된다.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히브리어 네페쉬, 즉 "영혼" 혹은 인간을 묘사하는 "생령"[살아있는 영혼]이라는 용어를 만난다. 하지만 우리는 창세기 1:20, 21, 24, 30 의 네페쉬가 이미 동물들도 또한 지칭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영어 버전의 번역가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여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영혼"이라는 단어는 "불멸의 영혼," 인간만이 소유한 것이라는 개념에 너무 고착되어 "영혼"이 인간과 동물의 공통 속성임을 밝히는 일을 주저한다. 창세기 1:20 에서 "움직이는 피조물, 살아있는 영혼(네페쉬)." 21 절에서 "모든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혼[네페쉬]." 24 절에서 "땅이 그의 종류에 따라 살아있는 영혼 [네페쉬]." 30 절에서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살아있는 영혼[네페쉬]이 있는 지구상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이라는 구절들을 본다.

핵심 요점

여기서 우리가 확립하는 중요한 점은 사람도 동물도 몸과 영혼이 분리된 채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이분된 생물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과 동물은 모두 영혼들**이다**. 즉 생명의 신성한 숨결의 주입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의식적인 존재들이다.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그들은 또한 우리가 영어로 사람과 동물 모두 의식적인 존재 또는 의식 있는 존재를 가진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듯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할 수는 있다. 구약성경의 23 개 구절과 신약성경의 한 구절 (요한계시록 16:3)에서 히브리어 단어 네페쉬 *nephesh*, 즉 영혼 또는 그것의 동등한 그리스어 프슈케 *psuche* 는 동물들의 경우에도 사용된다. 모든 경우에 “영혼”은 활기, 생명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레위기 17:11 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 [네페쉬]은 피에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육체의 영혼은 피에 있다”와 같다.

“영혼”의 히브리어 개념에 대한 이 조사에서 나온 중요한 사실은 불멸성은 결코 영혼과 한순간도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성과 도덕적 식별 능력 면에서 인간을 동물보다 훨씬 더 높게 고양시켰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가 동물의 왕국과 공유하는 것은 그도 동물과 같이 비슷한 죽음을 당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인간도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고” (시편 49:12). “사람은 짐승보다 탁월하지 않다. 하나는 죽고 다른 하나도 죽는다. 모두는 흙이며, 모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전도서 3:19, 20). 전도서 필자는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죽은 영혼에 대해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랄 이유가 없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에스겔 18:4, 20). “사람의 시체 [네페쉬]에 의해 더럽혀진 영혼들이 있었다”(레위기 21:11). 우리는 여기에 영혼 (네페쉬)의 가장 유용한 정의에 도달하는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매우 많은 경우에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네페쉬와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프슈케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쉽게 “개

성체 person"로 번역된다. 성경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영혼) 또는 죽은 사람 (영혼)으로서 한 개인이다. 성경적 언어의 이 핵심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저명한 영국인 학자로서 『기독교 단어들』 *Christian Words* (T & T Clark)의 저자인 학자 나이젤 터너 Nigel Turner 에게 호소한다. 그는 히브리어 네페쉬에 상응하는 신약 그리스어를 다루며 말한다.

우리는 성경 그리스어 프슈케 *psuche* 가 "신체적[물리적] 생명"을 뜻한다는 것…이 개념과 함께… "사람"… 사람의 생명, 그의 의지,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로서의 모든 인간을 뜻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한 인간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의 영혼 *psuche* 을 잃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의 상실이다. 약 3000 프슈케들이 교회에 추가되었을 때 (사도행전 2:41), 전체 인간들이 추가되었다. 모든 프슈케에게 오는 두려움은 모든 사람 위에 있었다 (사도행전 2:43). 모든 프슈케는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로마서 13:1),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그와 같다 (사도행전 3:23, 로마서 2: 9, 16:3, 고린도전서 15:45, 베드로전서 3:20, 베드로후서 2:14, 요한계시록 16:3).

우리는 이 성구들에 참수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에 대해 말하는 요한계시록 20:4 를 추가 할 수 있다. 이 구절에서의 "영혼들"은 너무나 자주 잘못 읽는 것과 같이 "탈신체화된 영혼들"disembodied souls 을 의미하지 않고, 참수당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20:4 에서 그들은 천년 통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봉사하기 위해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진다. "성경 그리스어에서 프슈케 (영혼)는 특징적으로 인간, 자아를 뜻하고,

그것은 개성, 우리가 종종 에고라고 부르고… 강조는 온전한 자아에 있다…마리아의 프슈케는 마리아의 인간 개성이었다…예수님은 지친 나의 성격, 자아, 전체적인 나를 그에게 위임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11:29). 예수님은 자신의 자아 (프슈케)를 양을 위해 내주셨다'(『기독교 단어들』 *Christian Words*, pp. 418-420). 여기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영혼(프슈케)을, 그 자신을, 쏟아 죽을 것이라는 구약성경의 예언을 상기하게 된다.

나이젤 터너는 "영혼"이라는 용어를 중세 시대와 현대 기독교인들이 오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별도의 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 부드럽게 경고한다. 그는 이 새로운 정의가 그 기원은 히브리 구약성경이 아닌 이교도 그리스에 있다고 지적한다. 터너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영혼은 종종 마치 몸에 갇힌 것으로, 플라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여긴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신의 영 (프뉴마 *pneuma*)을 포기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죽음의 때에 영혼이 하나님에게 날아갔다고 믿었다'(『기독교 단어들』*Christian Words,* p. 421). 터너 박사는 노먼 스네이스 Norman Snaith (『해석』*Interpretation* 1, 1947, p.324) 가 "성경 어디에도 죽음에서 살아남는 불멸의 영혼을 암시하는 부분은 없다"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한다.

"영혼"이라는 용어를 죽음의 때에 육체적 고향을 벗어난 인간의 불멸성의 일부로 보는 플라톤과 같은 시각으로 이해하는, 앞의 결론으로 성경에 접근하면 대단한 혼란을 야기한다. 저명한 학자들이 "영혼"이라는 용어에 대한 성경적인 기독교적 정의를 계속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보증되지 않은 가설들에 대해 끊임없이 항의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에드윈 프룸 Edwin Froom 에 의한『우리 아버지들의 조건주의적 신앙』*The Conditionalist Faith of Our Fathers* (Review and Herald, Washington, DC) 두 권 속에 합쳐진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자료로부터, 선도적인 히브리 학자인 프란즈 델리취 Franz Delitzsch (1830-1890)의 말을 인용한다. "성경에는 원래의 불멸성을 의미하는 것은 없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은 죽을 수 있는 것이고 필멸이다." 저명한 미국 성공회 맥코넬 J.D. McConnell 박사는 이렇게 썼다.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리스인들이 영혼은 파괴할 수 없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생각을 새로운 종교로 도입했고, 이 그리스의 영향이 초대 교회에서 지배적인 교리가 되었다. 영혼의 자연적 불멸성이라는 플라톤적 관념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개념이 처음부터 **기독교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매우 파괴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불멸성의 진화』 *The Evolution of Immortality,* 1901).

좀 더 최근에 캐논 굿지 Canon Goudge 는 기독교 안에서의 그리스의 영향을 비난하면서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결코 회복하지 못한 재난이 교리 또는 실제에서 발생했다"("유대인의 부름"The Calling of the Jews,『유대교와 기독교에 관한 에세이집』*Collected Essays on Judaism and Christianity,* Shears and Sons, 1939)고 진술했다.

성경에서의 “영”

이제 우리는 “영”이라는 성서적 용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창세기 2:7 에서 우리는 흙으로부터 형성된 사람에게 생명의 숨결이 주입되어 살아있는 사람, 즉 활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배운다. 생명의 숨결이 사람을 죽은 사람이나 죽은 영혼과 대조적인 살아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드는 그 생명의 불꽃을 전해준다는 것이 분명하다. 창세기 7:14-15 에서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생명의 숨결**]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과 같이, 생명의 숨결 (루아흐-영 *ruach*-spirit)은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으로 소유된다.

여기서 “호흡”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를 나타낸다. 같은 장의 22 절에서 홍수에서 모든 생명의 멸망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는 진술로 요약된다. 인간과 동물의 공통된 운명은 전도서 3:19-20 에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에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같은 필자는 인간과 동물의 영 (루아흐)은 죽을 때 똑같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전도서 3:20; 12:7). 시편 기자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조

된 존재들은 공통된 종착지로 간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의 호흡[루아흐]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시편 104:29)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 필자들에게 인간의 연약함의 본질은 죽을 때 그의 숨결 (**루아흐**)이 그에게서 나가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시편 146:4)라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 [사람]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욥기 34:14, 15)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의 루아흐 *ruach* 는 창조물을 활기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다. 그것은 뇌와 신경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추진력이다. 루아흐가 몸에서 물러나면 생물은 죽고 신성한 힘은 그것을 준 존재에게 돌아간다. 생물은 죽으면 무의식이 된다. 왜냐하면 지각 있는 존재의 근원인 루아흐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영"이라는 성경적 용어는 "영혼"과 마찬가지로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의식적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개인성**을 함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영은 활력을 창조하는 생명력이다, 신약성경에서 영은 성령에 의해 주어진 더 높은 신성한 생명의 자리를 지시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터너가 말하듯이, 프뉴마 *pneuma* 와 형용사형 프뉴마티코스 *pneumatikos* 는 우리 본성의 영적 측면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성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신자 자신의 프뉴마인지 또는 성령인지를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독교 단어들』*Christian Words* p.427). 그러나 **프뉴마**는 야고보서 2:26 에서 여전히 원래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 그러므로

죽음은 두 개의 신약성경 구절들에서 영의 양도로 묘사되는 것이 적절하다.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영 spirit]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누가복음 23:46)라고 묘사되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7:59, 60 에서 순교자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영 spirit]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3]고 묘사된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기서 "영"[영혼]이 탈신체화된 영으로서 이제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진정한 인간을 뜻한다고 보는 그리스적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다른 그리스 철학의 세계로 도약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논의 중인 문제의 핵심이다. 성경적 견해는 스데반이 잠들었고 그는 다른 곳에서 계속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데반은 여전히 죽은 몸으로 확인되는데, 예수님이, 그 전 인격체가, 생명을 주는 신성한 영이 철수되었을 때 나중에 부활하는 순간에 그것이 회복되리라는 견해를 지니고 굴복했던 것과 같다. 죽은 사람은 흙 속에서 깨어나게 되는 순간까지 무덤에서 자고 있다가 부활 때 일어난다 (다니엘 12:2). 마찬가지로 나사로도 잠 들었는데, 그것은 그가 잠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 때까지 계속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는 완벽한 완료시제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고 그가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름을 받을

---

3 또는 스데반은 시편 31:5를 인용하는데, 그곳에서 다윗은 죽기 직전이 아니었는데 "내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한다. 스데반은 부활할 때 신자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22, 23).

때까지 죽은 채로 남아있었다 (요한복음 11:11, 14, 43, 44).

우리는 영의 떠남이 인간 자신이 다른 장소로 완전히 의식적으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을 맞는 뜻으로 보고 성경을 읽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의식적 실체로 영혼을 보는 그리스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히브리 사상과 양립할 수 없는 외래 그리스 관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두 개의 상반되는 생각의 세계를 혼합하는 것이 된다. 결과는 사도들과 우리 자신 사이의 의사소통의 단절로 이어지는 혼란이 될 뿐이다. 성경 기록에 우리 자신의 전통적 전제들을 도입하고 "영혼" 및 "영"과 같은 키워드에 대한 우리 자신의 그리스적 정의를 부과함으로써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벽을 세우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죽음의 현실에 대한 성경적 주장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 우리 죄를 위한 그의 실제적 죽음을 부인하게 된다. 우리가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의식적인 탈신체화된 영으로 살아남는다고 항상 믿어 왔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두 개의 구절들 속에서 신약성경 필자들이 그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사람이 탈신체화된 영이라는 사후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4] 신약성경에서 죽음과 관련된 탈신체화된 상태에 대한 단

---

4 히브리서 12:23은 교회 전체가 하늘에 등록되어 있고 영이 완전해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기 전에 탈신체화된 [육신이 없는] 영들로 하늘에 [천국]에 살아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일한 언급에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바울은 그 [탈신체화된] 상태를 예상하는 것을 피한다.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옷을 입기를 갈망한다고 말하고,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린도후서 5:3, 4).[③]

③ 독일성서공회 해설에서는 "바울은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영의 해방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새로운 총체적 존재, 즉 땅의 육신(이 장막)이 죽을 때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하늘의 몸(장막)을 사모한다. 죽음을 '옷을 벗어버림'과 '벌거벗음'으로 비길 수 있다. ...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죽음을 극단적인 빼앗김의 상태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가 바라는 바는 이러한 상태가 완성의 때가 곧 등장함으로써 해소되는 것이다. 벗어버리고 싶은 소원이 아니라 덧입고 싶은 소원은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을 때에 예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는 희망을 뜻한다"고 해설하고 있다.『성경전서: 개역개정판』대한성서공회 2004.

학자들은 이 구절을 토대로 하여 "**탈신체화된 영의 개념은 히브리적 정신과 조화되지 않는다**" (앨런 리처드슨 Alan Richardson,『신약성경 신학 입문』*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p.196, 강조 추가됨)라고 지적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 탈신체화된 영 혹은 영혼 개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전한 인간이 부활되는 진정한 희망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종종 죽은 사람들에 대해 상상하는 상태 그 자체이다. 부활

이라는 중심 교리와 충돌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성경적 견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모든 신자들의 집단적 부활에 대한 성경적 강조를 유지해야만 한다. 그 위대한 행사를 위해 신실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쉬는 동안 신자들은 진지하게 기다린다 (다니엘서 12:13).

제 3 장

죽은 자들의 장소와 상태

영역본들이 네페쉬와 "영혼"을 일관되지 않게 번역함으로써 동물과 인간 둘 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심각한 혼란은 "**지옥"*hell*** 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성경 용어, 즉 하나는 모든 죽은 자들의 장소를 뜻하고 또 다른 의미는 악인들이 가게 되는 미래 형벌의 장소 혹은 "지옥 불"을 뜻하는 것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초래되었다.[5] 구약성경에서 "지옥," "무덤," "구덩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스올 *sheol***(그리스어 **하데스 *hades*** 에 상응)은 옳은 사람이든 그른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가게 되는 장소를 지시한다. 이 장소는 땅 밑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고라 Korah, 다단 Dathan 및 아비람 Abiram 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

5 세 번째 단어 타르타로스Tartaros를 "지옥" 으로 옮겨서 혼란을 더했다. 타르타로스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언어적 형태는 베드로후서 2:4에서만 나오는데, 인간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감금되는 장소로 묘사된다.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민수기 16:31, 32)라는 구절이 있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선과 악을 막론하고 모든 영혼은 죽을 때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하데스)에 맡겨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시편 89:48).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그의 영혼을, 그 자신을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하데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시편 16:10; 사도행전 2:27, 31)라고 말할 때도 같은 진실이 표현된다. 그리고 요셉의 실종 소식을 들은 야곱이 위로를 받기를 거부하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라고 말한다. 이사야 5:14 에서 그 선지자는 스올을 그 속으로 내려가는 죽은 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지칭한다. 이사야 14:11 에서 바빌론 왕의 영화가, 15 절에서는 왕 자신이 스올로 내려가게 된다. 무덤 속에 누워 있는 다른 왕들도 있다 (18 절).[6] 같은 맥락이 "사체"(19 절), "매장"(20 절)을 지칭하고, 전체 상황이 우리가 성서를 통틀어서 찾게 되는 것, 즉 스올 (하데스)이 죽은 자들의 세계, 우리가 정확하게 "묘지"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확증은 바다 속의 죽은 자들이 하데스, 즉 무덤 속에 있는 죽은

---

6 스올에서의 왕들은 시적으로, 벌레들이 덮개가 되고 약속된 구더기가 침대가 될 바빌론의 패망한 왕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사야 14:10, 11).

자들과 외관상으로 구별되는 요한계시록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에서 볼 수 있다.

죽음의 잠

스올 *sheol*/하데스 *hades* 에서의 죽은 자들의 상태는 일관되게 성경에서 잠의 상태로 묘사된다. 스올은 고문의 장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악인과 신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샤차브”*shachav* (“잠”)는 익숙한 언어로 반복되는데, 죽은 사람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열왕기상 2:10 등), 즉 그는 이미 잠들어 있는 선조들과 합류했다는 뜻이다. 이 가장 눈에 띄는 문구를 통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기 있는 표현인 “통과” 또는 “집으로 가는 것”과는 달리 죽은 자들은 무의식 속에서 쉬고 있다고 알게 된다. 진짜 사람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다른 곳에서 완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전혀 없다. 시편 6:5 에서 우리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전도서 9:5 에서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며...”라는 것을 알게 된다. 시편 13:3 은 죽음의 잠에 대해 말하고, 시편 146:4 에서는 죽음의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즉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시편 115:17).

다니엘은 종말론적 부활을 고대하며 죽은 자들이 흙 속에서의 잠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을 본다. 그것은 죽은 자들이 한 번 잠들었다가 즉시 의식이 있는 채로 떠난 영들이 되어 부활할 때 몸과 합류할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이 성경 기록에 들어있는 것으로 강요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2 는 부활을 땅의 흙 속에서 잠자고 있는 죽은 자들의 소생으로 우리에게 틀림없이 묘사해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가올 시대의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 나타날 때까지 흙 속에 있다.[7]

정확히 똑같은 진리를 욥기 14:11-15 가 가르친다. 여기서 욥은 부활의 전망을 숙고한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

7 다니엘 12:2의 "영원한 생명"은 문자 그대로 지상 메시아 왕국의 "다가올 시대에서의 생명"이다 (마태복음 5:5; 요한계시록 5:10). 신약성경에서의 등가물인 "영생," "영원한 생명"은 "다가오는 시대에서의 생명"으로도 번역되어야 하는 전문 용어이다 (주 15와 비교).

나사로의 부활

신약성경에서는 부활을 훨씬 더 강조하면서, 동시에 부활 이전의 조건으로서의 잠에 대해 강조한다. 마태복음 27:52 에서 우리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즉 성도들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읽는다. 우리가 이미 간단히 언급한 요한복음 11:11 에서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님 자신의 죽음의 "역학"에 대한 가능한 한 가장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온전히 아시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지만 나는 그를 깨울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셨다"고 말한다. 물론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자연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어지는 잘 알려진 설명은 주님께서 어떻게 그 죽은 사람을 무덤으로부터 나오라고 부르셨는지 묘사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이 비할 데 없는 언급에 나사로, 즉 세상을 떠난 영혼이 다른 곳에서 완전히 의식이 있는 채로 나흘 동안 있었다는 외래적 관념을 부과한다면 합당한 해석을 순전한 조롱거리로 만들게 될 것이다. 생명의 소멸과 의식의 정지로 죽음을 보는 히브리적 개념의 단순성은 진짜 사람은 탈신체화된 영으로 죽음 이후에도 생존한다고 보고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는 그리스적 이원론적 체계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60 도 종종 실제 사람과 인칭 대명사를 분리시키게 만드는 [그릇된] 전통의 침투에 대항하여 보존되어야 한다. 스데반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겼고, **잠 들었다고** 설명된다. 다윗의 죽음은 대단히 명료하게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사도행전 2:29)라고 묘사된다. 바울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약속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던-히브리서 11:13, 39]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사도행전 13:36).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사도행전 2:34)라고 진술한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몸이 아니라 영[영혼]으로 하늘로 **참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는 해설자들의 시도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한 해석은 그 사도의 진술에 대한 분명한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 일관된 사망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잠"을 사용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4, "조상들이 잔 후로," 데살로니가 전서 4:13,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고 있다. 고린도 전서 7:39,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만약 그가 잠들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고린도 전서 11:30 에서 많은 교인들이 "자는 중이다"(현재 시제가 중요함), 즉 "죽었다"고 표현한다. 고린도전서 15:6 에서도 주를 본 많은 신자들이 잠들었다고 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5:18 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잠든) 사람들은 멸망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미래의 부활의 필요성에 대해 진술한다. 이러한 논쟁은 실제로 바울이 그들 죽은 자들이 이미 살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틴데일의 항의

우리의 결론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구별 없이, 죽은 자들은 부활을 통한 생명을 기다리면서 죽은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러한 명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위한 미래의 부활이라는 관념과 일치한다. 만약 악한 죽은 자들이 실제로 미래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의미로 그들을 위한 현재의 형벌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선고 이전에 처벌을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인들의 경우에도 현재의 의식적인 지복 [혹은 희열]이라는 개념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신약성경 전체의 주장을 부정하게 되는 셈인데, 부활만이 불멸성을 부여한다. 우리가 옹호하고 있는 견해의 확고한 지지자인 윌리엄 틴데일 William Tyndale [c.1494-c.1536]의 (그 전의 존 위클리프 John Wycliffe [c.1320-1384)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항의를 고무했던 것도 이러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대들 [로마 가톨릭교인들]은 떠난 영혼을 천국, 지옥, 연옥에 두어 그리스도와 바울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쓴 논쟁을 파괴한다. 참된 믿음은 부활을 중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시간 추구해야 한다고 경고를 받는 것이다. 이교도 철학자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영혼이 계속 살아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 교리에 철학자들의 육적 교리를 결합시킨다. 그것들은 너무나 대조적이라서 어울릴 수 없는데, 기독교인 안에 영과 육이 어울릴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육신적 마음의 교황은 이방 교리에 동의하여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성경을 타락시켰다. 다시 영혼이 천국에 있다면 왜 그들은 천사들과 같이 좋은 상황에 있지 않은지 말해 달라. 그렇다면 부활의 원인은 무엇인가?"(『토마스 모어 경의 대화에 대한 대답』*An*

Answer to sir Thomas More's Dialogue, 제 4 권, ch.2, pp.180, 181).

죽음에 대한 그리스적 성경 해석의 위험에 대한 동일한 경고는 많은 다른 신학 진영들로부터 나온다. 복음주의 학자 래드 G.E Ladd 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일반적 신조에 대해 "그런 생각은 그 자체로 인기가 있지만 성서 신학보다는 그리스 사상의 표현이다"(『마지막 때』*The Last Times,* p.29)라고 말한다. 이 사실이 널리 인정됨으로써 그리스 철학을 흡수한 전통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의 죽음

죽음 이후에도 몸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의식 있는 영혼/영이라는 전통적 개념은 성경에 대한 설명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예수의 죽음이라는 문제의 경우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한 곳은 없다. 주님의 죽음에 대한 분석에서 그의 몸은 무덤으로, 그의 영은 천국으로, 그의 영혼은 하데스로 간 것으로 상정되는 분석을 보게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라고 묻게 된다. 그러나 그 질문은 신약성경 필자들인 히브리인들에게는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신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리스적 전제들을 지닌 채로 그 주제를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적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 분, 예수님은 **하데스**, 즉 무덤에 계셨

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 사상에서 "그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사도행전 2:27 에서 베드로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Holy One]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평범한 히브리어 대구법은 "거룩한 자"와 "그의 영혼"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그 메시지는 베드로가 계속 설명하듯이, 단순히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은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편에서 다윗은 메시아의 부활을 예견하면서 그의 영혼 (그 자신)이 죽은 자들의 세계인 하데스로 버려지지 않았고 생명으로 부활했다고 진술했다. 나사렛 예수의 분리되지 않은 개성체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명은 예수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설교하시기 위해 가셨다는, 베드로 전서 3:19 의 언급을 밝혀주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설교는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살아나셨을 때" 수행되었다고 말해진다. 이것은 부활 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언어 (요한복음 5: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로마서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 전서 15:22: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부활)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새롭게 부활했을 때 영들에게, 즉 베드로후서 2:4 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로 쉽게 이해되는 그 존재들에게, 이 승리를 선언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8] 홍수에

서 구원받은 여덟 영혼들이라는 말에서 사용된 "영혼"(베드로전서 3:20)은 "영"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을 뜻하는 "영혼"의 전형적인 사용이다. 이러한 용어들의 혼동은 탈신체화된 영으로 죽음 이후에도 살아나는 것으로 보는 인간에 대한 외래 관념의 도입에 기인한다고 우리는 본다. 앨런 리처드슨Alan Richardson이 말했듯이, 히브리 정신과 조화되지 않는 그 개념은 우리가 성서적 인류학과 동조하여 성경에 접근할 수 있기 전에 제거되어야만 한다.

인간에 대한 합당한 성경적 교리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의 목적은 인간을 타고난 불멸로 보는 넓게 퍼진 시각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히 죽음은 신체적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즉 참 자아는 죽지 않고 단지 완전히 의식적인 존재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분석과 같은 것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성서적 희망은 부활을 통해 필멸의 인간에게 수여되는 선물로서의 불멸성과만 관련이 있다. 선천적인 불멸성 개념은 성서의 부활 교리에 대한 위험한 방해가 되고 구원을 위한 모든 신성한 계획과도 참으로 상충된다. 넓게 분포되는 다른 신학 진영들과 기독교의 전체 역사를 아우르는 전문가들

---

8 『성 베드로의 첫 서신』*The First Epistle of St. Peter*에서의 훌륭한 논의를 참고하라 (E.G. Selwyn, pp.198, 199).

이 인간을 복합적인 통일체로 보는 성서적 관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학은 너무나 자주 아우구스티누스의 플라톤주의 Augustinian Platonism 의 만연한 영향에 의해 방해받았다. 우리는 이 외래 형이상학의 침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지식으로 성장하라고 촉구하고, 무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에베소서 4:18), 보편적으로 신봉되는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믿음이 지속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신조로 허용된다는 것은 옳을 수가 없다. 로빈슨 J.A.T. Robinson 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성경적 교리와는 다른 신학적 전제들에 기초한다"[9]고 말한다. 영국국교가 윌리엄 템플 William Temple 을 추모하는, 『영국의 개종을 향하여』*Towards the Conversion of England* (1945) 계획을 수립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인간의 영혼 (또는 의식)의 고유한 불멸성은 그 기원이 성경 출처가 아니라 그리스에 있다. 신약성경의 중심 주제는 영생인데, 누구나 혹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 선택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앞에 놓여 있다." 앳킨슨 B.F.C. Atkinson 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그 토론에 기여했다. "인간과 동물들 둘 다 영혼들이다. 그들은 분리되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는 이분적 생물이 아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 전체이며 그들의 정신력과 함께 몸도 구성한다. 그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즉 의식적인 존재라고 말해진다"(『생명과 불멸성』*Life and Immortality*, p. 2).

---

9 『결국, 하나님』*In the End, God*, p.91.

유족들을 관례적으로 위로했던 “중간 상태” 개념이 성경 필자들의 종말론적 기획과 자연스럽게 일치되는 것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성서만이 아니라 많은 신뢰할 만한 해설자들의 권위에 힘입어 인간의 탈신체화된 의식이라는 개념이 성서적 사유와는 조화를 전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 현재 “하늘 너머”에 생존해 있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장례식에서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전 흠정 강좌 담당 신학 교수는 “기독교 신앙은 몸과 영혼을 혼성 성격의 타락할 수 있는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으로 분리하거나 대립시키지 않는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죽는다. 그리스도 자신의 전인격체가 죽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전인격체가 생명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이 몸으로부터 탈출한 것이 아니었다. 죽어서 묻힌 자의 일으켜 세워짐이었다”고 우리에게 경고했다 (『기독교국의 믿음』 *The Belief of Christendom* 존 버나비 John Burnaby, p.189). 이러한 진술과 같은 것들은 죽음과 부활의 의식적인 중간 조건의 바로 그 근간을 뒤 흔든다. 왜냐하면 그 진술들은 사람은 단지 죽으면 묻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안전한 보호 속에 있기는 하지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긍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성경 학자들

또 다른 저명한 학자인 브루스 F.F. Bruce 는 중간 상태라는 우리의 관

념의 토대가 되는 탈신체화 개념이 바울에게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는 점을 마찬가지로 역시 강조한다.

바울은 분명히 부활과 분리되는 불멸성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어떤 종류의 몸이 개인성(혹은 인격)에 필수적이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은 그리스-로마 Graeco-Roman 유산의 영향을 너무 받아서 그 덕분에 우리가 바울의 관점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어떤 유형이든 몸이 없는 상태는 마음이 위축되는 일종의 영적 벌거벗음 또는 고립이 될 것이다... 그는 탈신체화된 상태의 의식적 존재나 그 상태에서의 환경과의 소통을 생각할 수 없었다 (『불멸성에 대한 드류 강연』 *Drew Lecture on Immortality*, 1970, pp. 469-471).

성경에서 탈신체화를 지시하는 그리스 용어가 한 번 보이는데 그런 상태에 대한 바울 자신의 두려움을 분명하게 표현한 맥락에서 출현한다는 사실이 매우 특이하다. 그런데 우리는 고인의 그러한 탈신체화된 죽음 이후 상태에 대한 믿음을 외관상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심의 여지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몸이 없는 의식적 존재라는 관념을 바울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수용하기를 망설인다. 그러나 우리의 신조는 비록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머무르고 있지만, 고인은 즉시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인간의 본성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미래의 부활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과는 논리적으로 양립될 수 없는 전통적 가르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게 되는지 아닌지 여부이다. 죽은 자를 위한 성경적 위로의 핵심은 현재의 탈신체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의 미래의 부활에 있다. 필요한 것은 그 다가

오는 사건의 확실성에 대한 신앙이다.

존 버나비 John Burnaby 는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존하는 부활이 아닌 다른 개념을 유지하는 큰 위험에 대해 암시한다. 전통적인 중간 상태를 언급하면서 그는 "이것은 죽음에 직면한 개인에게 위안을 주지만, 여전히 그가 남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위안을 주는데, 그런 위안은 '종말'에 대한 단순한 기대 속에서는 결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부활과 결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의 몸이 없는 채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몸이 온다면 그것은 무슨 목적이 있는 일인가?"(『기독교국의 믿음』*The Belief of Christendom* p.192). 바로 그렇다. 사실 그의 경고는 부활, 즉 파루시아 (재림)를 명시하는 그 위대한 사건을 그토록 많은 설교들이 애석하게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정당화된다. 그 사건을 죽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의식을 지닌 채 그리스도의 임재로 들어오게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했다면 이것이 과연 가능했을까?

따라서 의식적인 중간 상태를 성경을 토대로 하여 설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주요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는 탈신체화의 가능성이 성경 안으로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은 신약성경 필자들의 희망과는 이질적인 것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인격체로서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독교적 모험의 하나의 위대한 절정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재림 때의 부활과 무관하게 죽을 때 목표가 성취된다는 개념은 부활을 기독교적 종말론 기획의 단순한 부가물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활은 하나의 결과론이 되고 파루시아와 그 파루시아와 함께 도래할 하나님 나라는 신자의 마음속에 참다운 의의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그러한 빈곤한 종말론적 견해의 결과를 오늘날 교회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한 것은 분명히 중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4:1). 죽은 자들의 부활을 포함한 그 사건들[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성서 신학의 진정한 관심의 중심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가정된 중간 상태로 관심을 편향시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논의의 많은 부분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네가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라는 뱀의 거짓말이다. 삶과 죽음의 뚜렷한 대조가 흐려졌는데 그 결과 인격체의 실제적 죽음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죽음은 의식의 소멸이다. 그 무서운 상태의 반전은 단지 죽은 자의 부활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 뿐이다. 어떤 신학도 메시지의 바로 그 중심에 부활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 계시와의 접촉이 끊어진 것이다. 전통신학이 그 자체를 유일한 합리적인 견해로 강요하는 권력 때문에 그것의 우월성에 도전하는 모든 다른 관념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침입자들로 보이게 된다. 부활 이전의 의식적인 중간 상태라는 것을 부정하면 종파적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치부되고 주류 교회들로부터는 배척된다.[10] 그러나 성서적 사유로의 복귀를 호소하는 것,

특히 위클리프, 틴데일, 그리고 일군의 다른 성서학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저명한 해설자들에 의해 승인되는 그 성서적 사유로의 복귀를 호소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가?

---

10 성경의 진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일상적인 교회 신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종종 드러내게 되는 소위 "종파들"의 작업을 통해 주류 "정통"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제 4 장
대중 신학의 전통적 요새

우리가 호소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여러 개의 성경 구절들이 인용된다. 유명한 "증명 본문"은 고린도후서 5 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죽음을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있게 되는 것으로 묘사했다고 논의된다. 빌립보서 1:21-23 에서도 이 점이 뒷받침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떠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린 도둑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의 순간 천국에서 지니게 될 중간 의식을 예증하는 사례로 흔히 일컬어진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그런 결론을 확증할 수 있는 것으로 옹호된다.

표면적으로는 확실히 이러한 구절들이 탈신체화에 대한 그리스적 개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활이란 (신약성경이 그것을 묘사하는 것과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중적 기획에 따라) 영적인 몸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정말로 히브리적 사유의 견지에서 부활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전통적인 관념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행위를

나타내는 신약성경에서의 동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낱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당혹스럽게 된다. 지복의 비전을 소유하고 있는, 이미 충분히 의식적인 영들을 깨어나게 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의미가 있는가?

심각한 어려움

사실, 평균적인 교회 신자는 그 문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항상 믿고 있는 것들은 틀림없이 성서에 근거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전통적 가르침을 신약성경과 조화시키려는 시도들은 심각한 난제들을 봉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큰 난제는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천국]에 있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신약성경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예수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기 위해 “하늘로 가셨다”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 들었고 부활할 때까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언제나 묘사된다. 그리고 부활은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재림하는 미래의 일로 설정된다.

죽음의 순간이 부활의 순간과 일치하게 된다면 각 개인은 신자들의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채 부활해야 하고, 이것은 물론 성경 필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영광의 한 순간, 단지 그 한 순간을 모든 신약성경 필자들이 기대하기 때문인데, 다름 아니라 영광 속에서 메시아가

도착할 때 모든 신자들이 부활되는 바로 그 순간이다.

바울이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고, 그것이 말세에 예수의 출현과 동시에 일어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립보서 3:11-14, 20, 21).

이 구절에는 바울의 종말론적 견해의 세 가지 필수 요소, 즉 부활, 재림 (하늘에서 오시는 주님), 그리고 필멸에서 불멸로의 상태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용된 구절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고린도전서 15 장에서의 부활에 대한 위대한 설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깨우는 것을 재림 때로 설정하고 이 사건을 필멸성이 불멸성으로 교환되는 순간과 일치시킨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린도전서 15:22, 23, 42, 49, 50-54).

화해할 수 없는 모순

우리는 이 구절이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들이 **이미** 불멸성을 지니고 있다는 대중적 개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확실히 분명한 것은 불멸성을 부여하는 것은 오직 부활이라는 것이다. 부활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재림"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마련된 일이다.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져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은 그 때이다.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질 때까지 무덤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지 않은가? 부활이란 이미 의식을 지닌 영과 그것의 몸이 재결합하는 것이라는 암시는 전혀 없다. 비록 새로운 불멸의 존재의 창조는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몸에 영을 주입시키는 것을 분명히 수반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영은 몸을 떠나 의식적인 인격성으로 살아가는 개인이 아니다. 단지 부활

후에야 변형된 성도들을 불멸의 영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 **전에** 이미 살아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재림 때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매우 특별하게 진술되고 있기 때문이다(23 절).

데살로니가전서 4 장에서 예수님의 예상된 재림이 오기 전에 죽은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신자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게 된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미 그와 함께 있고, 죽음의 순간에 무덤을 극복하고 천국에서 그들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지적함으로써 모든 불안감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그런 종류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자고 있는 사람들(14 절; 데살로니가전서 5:10 비교)이 부활하고 위대한 날까지 살아남는 사람들과 연합할 것이라는 확실성을 강조한다. 절망에 대한 해독제는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부활에 대한 전망이지, 바울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중간 상태, 즉 죽은 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전통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성경 학자들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비록 그들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재림과 부활이 그 이전이 아닌 바로 그때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희망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영들에게 부활과는 무관하게 불멸성을 부여함으로써 "출발 총소리가 나기 전에 앞으로 달려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죽은 자들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 의식 상태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찾는" 일을 해야 한다. 더 과학적인 방법은 분명히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여 성경에 대한 선입견적 가설들을 검증하는 것이리라.

신약성경에는 세상을 떠난 죽은 사람들이 즉각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고 바울이 믿은 것으로 볼 확실한 증거로서 제시되는 두 개의 구절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들을 조사하기 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 장 (앞에서 인용), 즉 부활 장에 대한 로빈슨J.A.T Robinson 의 발언을 주목하게 된다. 그의 관찰은 대중의 신념을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일에서 약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의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대중적 견해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다면 신약성경에 대한 불공정한 취급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장례식에서 고린도전서 15 장을 읽으면, 이 장이 죽음의 순간에 관한 것이라는 인상을 강화한다. 사실 그것은 세 번째 날과 마지막 날이라는 두 지점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현대는 바울의 언어를 죽자마자 즉각 뒤따르는 단일한[개인적] 부활에 적용하려고 한다"(『결국, 하나님』*In the End, God*, p.105). 이러한 사실이 이 중심적인 구절(고린도전서 15 장)이 적절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았다는 것

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 구절은 바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관념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강제적으로 해석되었다.

대중적인 견해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유사한 잘못된 취급의 증거가 있다. 로빈슨은 이렇게 말한다. "현대적 관점이, 만약 그것이 성경을 언급한다면, 고린도후서 5:1-8 에 호소한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 장과 명백하게 대조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 몸을 입을 것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결국, 하나님』, p. 106). 우리는 다시 로빈슨의 "신약성경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기독교 종말론을 추월한 놀라운 변형, 그것이 전체 주제에 대한 관심 또는 핵심 포인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주목한다. 그는 종말론에 대한 대중적인 견해를 대조하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관점이 기독교가 기반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신약성경의 그림과는 얼마나 다른 외래적인 것인지를" 주목한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희망과 관심의 중심은 전혀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왕국의 영광 속에서 출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결국, 하나님』, p.42).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열쇠

선도적인 신약성경 학자에 의한 이 분석은 죽음 이후의 삶과 관련된 신약성경의 실제 사실들과 그 주제에 대한 전통적인 사유 사이의 난처한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대중적인 기획

은 신약성경 계획의 "놀라운 변형"을 나타낸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것은 기독교가 "기반을 둔 것으로 상정되는" 신약성경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다. 유일한 현명한 길은 이러한 견해는 성경적이지 않고 [그릇된] 전통의 결과라는 불쾌한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다. 신약성경 필자들의 관점과는 다른 종말론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잘못 다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을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개인의 죽음의 순간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신약성경 표준으로 볼 때, 그리고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결코 기독교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일반적 기독교인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원래의 기독교와 그 이후의 변형 사이에 만족스러운 타협이 성취될 수 있다는 착각을 계속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을 붕괴시키려는 의지가 없다. 그러나 그런 타협은 언어의 미묘한 변화에 의해서만 시도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살아나게 될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독교인은 **몸**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기독교인의 신조가 이것을 반영한다. 즉 의식적 개성체가, [죽음 직후] 탈신체화된 형태로, 천국에서 이미 상을 받았는데, 그의 몸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기다린다는 식의 믿음을 삽입하기 위한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미래의 집단적 부활에 대해, 그것이 실제 사람 [전인격체]과는 구별되는 **몸들만의** 부활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 미래의 집단적 부활의 중요성을 일부 보존하려고 시도한다. 우리가 고

려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은 신약성경이 몸과 몸에서 분리가 가능한 완전히 의식적인 영혼/영을 구별하는지 아닌지 여부이다.

종말론에 주어진 새로운 "비틀림"의 피할 수 없는 결과는 물론 관심의 중심을 미래의 부활로부터 죽음의 순간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 결과는 매우 중요한데 신약성경이 미래 부활과 연관시키는 위대한 사건으로부터, 즉 재림과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설립으로부터 관심의 중심을 돌려버리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죽음 이후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3 세기에 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도입된 외래적인 플라톤적 관념을 채택하여 변형된 체계가 원래의 신앙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질적인 영혼불멸성 개념을 부과했다. 그렇게 되어 세상을 "떠난 영혼"이 죽음의 순간에 의식을 지닌 채로 지복[희열] 속에 있게 된다는 관념의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나중에 부활된다는 온전한 관념이 불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신약성경의 종말론적 희망에 그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는 없었다.

성경에 대한 부당한 취급

신약성경의 글들 속에서 대중적인 신념체계를 읽어내려고 하면 전통적인 믿음과 가장 잘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두세 개의 구절들을 매우 부당하게 취급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장과 절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합당한 해석의 법칙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없

음을 인정하면 우리가 믿어 온 내용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난처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이 딜레마에 직면하여 "비신화화"demythologizing 학파[④]의 학자들은 하나의 종말론적 체계는 다른 체계와 마찬가지로 좋다고 주장한다. 모두 "신화들"이며 그것들이 신약성경 안에서 발견되든 밖에서 발견되든 간에 죽음 후에 우리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신성한 권위 있는 진술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④ 루돌프 불트만 Rudolf Bultmann (1884-1976)이 『신약성경과 신화』*New Testament and Mythology and Other Basic Writings* 에서 "비신화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독교 메시지의 신화적 표현을 실존적 해석으로 교체시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신화는 우주론적 견지에서 해석되기를 원하지 않고 인류학적 견지에서, 더 좋게는 실존적 견지에서 해석되기를 원한다"고 쓰고 있다. 비신화화는 기독교와 과학적 관념들 사이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다.

그러나 바울 견해의 기원이 (그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령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불가지론 agnosticism 으로의 그러한 회피를 전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 점에서 우리에게는 신약성경에 보존된 원래의 기독교 가르침의 안전성을 지지하면서 [그릇된] 전통적인 견해를 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행로가 남지 않는다. 교회 역사에 따르면, 주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행로를 취한 많은 종파들 내에 진지한 소수파가 있었다. 각 신자는 나중에 성행하게 된 전통보다 사도적 신앙을 선택하는 도전을 직면하게 된다.

기독교는 죽은 자들이 죽음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의식을 지닌 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가르치는데, 거의 보편적으로 유지되는 이 의견에 대한 정당화는 일반적으로 빌립보서 1:23 에 근거한다. 바울은 여기에서 신자들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하는 욕구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갈망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일반 기독교인들은] 수용된 전통에 대한 확증을 고린도후서 5 장에서 찾는다. 그곳에서 바울은 "몸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과 함께 하려는"(고린도후서 5:8) 희망을 표현한다. 즉각적인 맥락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의 보다 더 넓은 맥락으로부터 단절되면 의심할 여지없이 이 구절이 대중적인 견해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시도가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에 근거를 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첫째, 신약성경은 여러 곳에서 파루시아와 그 위대한 날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신자들의 부활을 모든 성도들의 집단적 부활로 일관되게 설정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바울은 부활의 정확하고 간단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고린도전서 15:23). 데살로니가 4 장에서 그는 잠자고 있다고 말해지는 기독교인들과 관련하여 신자들에게 위로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만약 그가 그들이 이미 주님과 함께 지복 속에서 완전히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용어이다.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은 미래의 부활 때 모두 다시 결합될 것이기 때문에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다. 오늘날 비슷한 상황에서 교회는 죽은 자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다는 주장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

다는 사실은 두 체계 사이의 큰 간격을 보여준다. 우리시대 교회 신자에게 미래의 부활은 단지 결과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참으로 결정적인 것은 죽음의 순간 이미 일어난 것이다.

바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것에 관한 빌립보서 1:23 에 나오는 바울의 진술은 무엇인가? 이 하나의 구절을 고린도전서 15 장, 데살로니가전서 4 장, 그리고 **같은 서신** (빌립보서 3:11-21)에서의 바울의 후속 발언들을 참조하지 않고 읽는다면, 바울이 죽을 때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기대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구절들 속에서 그의 사유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 충분히 설명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바울이 진정으로 목표로 삼은 것이 무엇인지는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같은 서신에서 명확하게 설명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립보서 3:11, 20-21). 그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을 성취하는 것 외의 그 어떤 다른 목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그의 발언을 부활과 연관된 것이 아닌 아주 다른,

즉 마지막 날에 대한 욕망과는 매우 다른 열망과 관련된 것으로 읽으면 대단히 부당하다. 대중적인 믿음의 함의는 기독교인이 부활과 무관하게 [죽음 직후]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죽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의 생명의 지속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무의미하게 된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 1:23 에서 죽음과 그에 따른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 단순하게 말한다.[11]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의식의 다음 순간은 그들이 부활하여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일 것이다. 이 삶에서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몸은 부재한 채로 주님과 함께 현존하는 것에 관한 그의 진술을 이제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 진술도 (단지 1 년 전에 작성된) 고린도전서 15 장과의 놀랄만한 유사성 때문에, 죽자마자 즉각적으로 뒤따르는 어떤 상상된 중간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미래의 부활을 지칭하는 맥락 속에 설정된 것임을 또한 알게 된다. 이것은 "영적인 몸"을 얻기 위한 기독교적 희망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는 바울의 일반 진술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고린도후서 4:14, 16). 이 발언들은 바울의 이어지는 논의에서

---

11 데살로니가 전서 4:16, 17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재림 때의 부활을 통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지를 묘사한다.

부활에서 분리된 미래 상태에 대한 관념들을 읽으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고린도후서 5 장과 고린도전서 15 장 사이에 세 가지 분명한 접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목하면 바울이 두 가지 다른 여행 목적지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두 구절에 공통된 첫 번째 특징은 "불멸성으로 옷 입는" 개념이다. 고린도후서 5:2, 4: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벗고자 함[탈신체화]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5:54 에서 정확히 같은 요점이 명시된 것을 본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두 번 째로, 두 구절들에 공통된 것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주님이 출현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2: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린도전서 15: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세 번 째, 불멸성에 의해 대체되는 필멸성 관념: 고린도후서 5:4:"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동일한 언어 사용을 포함하는 이러한 접촉 지점들은 확실히 바울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같은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그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히 그러하다. 고린도후서 5 장을 죽음의 순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각 개인이 죽을 때 **독립적으로 불멸성을 받는다고** 의미한다는 것은, 로빈슨이 말했듯이, "그 구절을 고린도전서 15 장과는 명백하게 대립된 것으로 읽는 것"이 된다 (『결국, 하나님』, p.106). 바울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게 만드는 것을 멈추고, 죽음 이후의 생명이라는 이 중심적인 문제에 대한 그의 모든 글들로 확장되는 놀랄만한 일관성과 통일성을 인정할 때가 분명히 되었다.

바울 종말론의 통일성

우리는 바울 서신의 관련된 다섯 구절들을 복합판으로 하나로 정리함으로써 신자들의 미래 생명에 대한 바울 생각의 통일성을 더 온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단일 목표, 즉 파루시아 때의 모든 신자들의 부활이라는 목표를 추구했다고 우리가 이미 얻은 인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은 모든 신약성경 필자들에게 결정적이다. 바울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추적할 수 있다. (강조는 그의 생각의 통일성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바울의 미래 희망에 대한 근본적인 교리가 다음과 같이 진술되고 있다.

기록된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

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린도후서 4:13-5:2).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20).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47).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 8: 23, 18-19).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17).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4).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고린도전서 15:51, 52).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고린도전서 5:23).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52, 53).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7).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6-8).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 7:3).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빌립보서 1:23). ...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11).

이 구절들에서 부활 전이 아니라 **부활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성서적 기획의 복원은 성경에 전통적 믿음을 부과하려는 노력 때문에 생긴 부당한 긴장을 해소할 것이다. 첫째, 부활은 죽은 사람들의 죽음에서 삶으로의 실제적 전환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위대한 미래 사건은 기독교적 사고의 중심 위치를 되찾을 것이다. 둘째, 개인은 죽을 때 몸을 빼앗기는 영혼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통일체로 생각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 사상의 해독은 우리시대의 기독교 사유방식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모든 신약성경 필자들이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정의 강렬도가 복원될 것이다. 신약성경 필자들에게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죽음의 순간에 대한 전통적인 강조는 기대의 강렬도를 가장 성공적으로 소멸시켰는데, 그에 따라 미래에 대한 성경적인 기독교적 견해는 교회 진영들에서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비성경적 전통과 부합되게 만들기 위해 신약성경의 일부 분리된 구절들을 왜곡시킬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 장에 대한 세부적 설명

바울이 다루는 주제는 신자들의 부활의 전망이다. 그는 자신이 고려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로 시작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후서 4:14). 논쟁은 이 중심적인 희망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 하노니”(16 절). 그런 다음 바울은 현재 우리가 몸에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과 파루시아 때 받게 될 부활의 영광을 대조한다. 가장 좋아하는 바울의 주제에 대한 현저한 강조가 있다. 즉 “현재의 악한 시대”(갈라디아서 1:4)와 미래의 메시아 시대 사이의 대조이다 (디모데전서 4:8). 현재의 환난은 다가올 시대의 영광에 비하면 순간적이고 미미하다(고린도후서 4:17). (공인 버전 The Authorized Version 의 그리스어 아이오니오스 *aionios* 에서 나온 “영원한”은 “다가오는 시대와 관련된” 것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기독교 단어들』*Christian Words*, p.455.) 지금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가오는 시대와 관련된다 (18 절). 우리의 현재 지상의 집 (몸)이 죽음으로 파괴된다고 해도 새로운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전망은 확실하다. 새로운 몸은 다가오는 시대의 삶에 적응된다 (11 절).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로운 몸이 올 때 그것을 입기를 갈망한다 (2 절). 그때 우리는 알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죽음에서,” “부활을 예상하며 땅에 심어진 씨앗 알맹이”와 비교, 고린도전서 15:37). 우리는 탈신체화되기를 원

하지 않고 죽음이 생명 속에서 삼켜질 때 부활에서 불멸성을 입기를 원한다(3, 4 절). 영은 약속된 불멸성의 열렬한 존재이다 (5 절). 우리는 우리가 현재의 [임시] 몸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6 절). 우리의 욕망은 이 몸 안에서의 우리 집을 떠나 주님과 함께 우리 집을 차지하는 것이다 (8 절). 즉, 파루시아 때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몸과 우리의 임시 몸을 교환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10 절).

전체 논쟁은 그때와 대조적인 현재 우리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현재와 파루시아 사이의 간격은 파루시아 때까지 살아남는 경우에만 관련이 있다. 죽음 상태를 바울은 무시한다. 부르스 F.F Bruce 가 말하듯이 "그는 탈신체화된 상태에서의 의식적인 존재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다"(불멸성에 대한 드류 강의, 『스코틀랜드 신학 저널』 Drew Lecture on Immortality,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24, No. 4, p.471). 탈신체화된 영으로 살아남는 것은 그가 피하는 유일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전통적 기획은 죽음의 순간에 몸이 없는 채로 살아남는 전망에 토대를 두지만, 성경은 그러한 [탈신체화된] 상태에 대한 단 하나의 언급을 할 뿐이며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거부한다. 우리의 실수는 "몸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마치 "몸에서 떠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 탈신체화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다른 글을 보면, 우리는 그가 오직 파루시아 때의 부활을 통해서만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데살로니가전서 4:17). 바울에게는 몸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처를 취하는 것 (8 절)은 분명히 몸의 상태를 함축한다. 왜냐하면 전체 구절이 몸에 대한 비유들인 거처, 숙소, 천막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러므로 오래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요한 1 서 3:2).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빌립보서 1:21-23

잠들어 있다가 부활하여 깨어난다는 간단한 계획만이 성경적 정보를 옳게 해석하는 것이라면 (뿐만 아니라 초기교회 역사에 관한 저작물들에 의해서도 그 해석이 널리 지지되고 있으므로), 빌립보서 1:21-23 은 죽자마자 그리스도와 함께 즉시 임재한다는 개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결코 볼 수 없다. 이 절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는 죽어서 잠든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흐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쉽게 해결된다. 부활하여 깨어나는 신자는 죽음과 부활 사이의 간격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빌립보서 1:23 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성찰한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리라." 그는 당연하게도 죽음 직후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죽으며 눈을 감는 순간 직후 즉시 마지막 트럼펫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는 죽음과 그의 목표인 부활 사이의 간격을

경험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3:11). 그러나 우리는 오스카 쿨먼 Oscar Cullmann 의 말과 같이 죽은 사람들은 여전히 "시간 속에"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영혼의 불멸 또는 죽은 자의 부활?』*Immortality of the Soul or Resurrection of the Dead?* p. 49). "그렇지 않으면," 쿨먼이 덧붙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13ff 의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죽은 사람들은 "시간 속에" 머무르기는 하지만 그들에게는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간격에 대한 인식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만, 죽어가는 신자는 이 시대를 떠나 파루시아 때 도착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된다.

우리시대 신자들이 바울과 함께 명료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신앙을 공유한다면, 부활 이전의 의식적 상태라는 개념을 그의 글에서 읽으려는 유혹은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초대 교회의 경우 파루시아 때의 부활이 유일한 목표이다. 그는 그때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희망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 장에서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인도하게 될 사건을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데살로니가전서 4:17)고 묘사한다.

일부 우리시대의 해설자들은 탈신체화된 영으로서의 삶을 바울이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면서, 그 사도가 불과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15 장에서 신성한 계시로 받았던 종말론적 기획 전체를 고린도후서 5 장에서 전복했다고 제시하는, 절박한 방편적 설명에 의존하게 된다. 그들은 고린도후서 5 장에서 바울은 파루시아 때가 아니라 죽을 때에 새 몸을 받

기를 기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해결책”은 죽은 사람들이 파루시아 때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 직후에 의식을 지닌 채로 [탈신체화된 영/영혼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전통적인 관념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존하려는 욕망을 드러낼 뿐이다.

제 5 장
부자와 나사로와 십자가 위의 도둑

다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죽은 자들에게 처벌과 보응이 **부활 전에** 주어진다는 대중적인 가르침으로 가장 잘 동화될 수 있다. 그러나 심판 전에 악한 자들의 운명이 봉인되고 그들의 형벌이 처리된다고 하는 바로 그 관념은 사리에 맞지 않은 것으로 선언되었다. 성경은 누구에게도 부활과는 별개로 불멸성을 부여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심판받도록 위탁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28, 29; 요한계시록 20:11-15). 래드 G.E. Ladd 는 "중간 상태에 대한 전체적인 성경적 가르침과 모순되는 이 구절[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는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즉 심판과 보응이 사망 직후에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항상 재림 때 심판이 일어난다**"(『마지막 것들』*The Last Things*, p.34, 필자의 강조)고 주목한다.

비성경적 전제들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실제로 완전히 다른 두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 모든 것은 성경의 이 흥미로운 부분을 읽으며 어떤 전제들을 적용했는가에 의존한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용어들을 일부 빌려왔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리스 사고의 영향 하에 받아들인 비성경적 원천을 실제로 용납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데스가 악한 인간의 영에 대한 **현재의** 고통의 장소가 아니고, 몸을 벗어난 의식적 인간의 영이라는 개념은 성경 필자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구약성경의 관점에 따라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그 비유에 접근한다. **미래의 하데스는** 처벌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시편 9:17).

이야기의 서두, 즉 "이제 어떤 남자가 있었다…"는 부분은 같은 구문으로 시작하는 탕자의 이야기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환기시키는데, 직설적인 종말론 담론이라기보다 도덕적 교훈을 담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한다. 파라르 F.W. Farrar 는 "유대적 은유가 풍부하다고 고백할 정도인 구절에서 중요한 신학적 교리의 증거를 찾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스미스의 성경 사전』*Smith '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2, p. 1038).

과트킨 G.M. Gwatkin 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눈』*The Eye for Spiritual Things* 의 p.41 에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텍스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비유는 비유일 뿐** 실제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경고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의도하신 교훈을 위해 좋은 비유이지만, 우리는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려고 의도하신다고, 예를 들어 우리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무릎에 앉을 것이라고 가르치신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흠정 강좌 담당 히브리어 교수는 유사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여기에서 주님의 목적이 중간 상태 교리를 알려주시려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비유를 오해하는 것**이다”(라이트 박사 Dr. C.H. Wright, 『중간 상태』*The Intermediate State*, p. 278).

이러한 경고들에 대해 사람들은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미래의 형벌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에서 우리자신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동일한 플라톤적 철학을 흡수하여 구약성경에 대한 사유에 대한 혁명을 일으켰다. 몇 권의 經外的 apocryphal, 위전적僞典的 pseudepigraphal 책들이 성경에서의 **스올/하데스**가 탈신체화된 영들이 사는 거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데, 그런 관점은 무덤을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전도서 9:10) 곳,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침잠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전도서 9:5), 그들이 “티끌 가운데 자는”(다니엘 12:2) 곳으로 묘사하는 것과 대조된다.

바리새인들은 **스올/하데스**를 두 구획으로 나누어 의로운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의인들과 “저주와 채찍과 고통”을 겪는 악인들을 각각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에녹 Enoch 전서 22:9-13). 누가복음의 비유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언어에는 명확한 접점들이 있다. 그러나 어법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에는 어디에도 22 절부터 26 절 사이에 묘사된 보응과 처벌의 장면이 **부활 전에** 일어난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다. 비록 그 이야기는 죽자마자 즉각적으로 생존한다는 플라톤적 체계에 맞게 만들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나사로와 부자는 탈신체화된 영들이나 영혼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비유는 (즉, 적어도 19-26 절은) 또한 성경적 계획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만족스럽게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내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수용"하여 만드신 것이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 하나의 비유에서 사건들의 정확한 프로그램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것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 분명한 가르침이 주어져 있는데도 이 이야기를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메시아적 연회

성경적 종말론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가난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언급을 천사들이 신자들을 파루시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적 연회 (마태복음 24:31; 누가복음 14:15)로 모으는 것,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신자들을 함께 서로 의지하도록(마태복음 8:11) 모으는 것과 평행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보응을 "의로운 자의 부활에"(누가복음 14:14) 있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누가가 죽음의 순간에 보상을 설정한다고 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된다. 부자의 매장에 이어 "그의 눈을 들어" (이것이 부활 때 눈을 뜨는 것에 대해 암시하는 표현이 될 수 있을까?)가 뒤를 잇고 불꽃 속에서 고통 받는 그의 고통이 뒤따른다 (누가복음 16:24). 여기서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누가 복음 13:28)라는 구절이다. 아마도 23 절 조차도

비록 그런 의미로 읽을 수는 있지만, 하데스에서 고통이 경험된다는 것을 분명히 **진술하는 것이** 되지는 못한다. 불가타 Vulgate 성서 [4 세기에 된 라틴어 성서][⑤]를 포함한 일부 텍스트들에서 "하데스에서"를 "묻혔다"와 연결하고 "그의 눈을 들어올렸다"(즉, "*et sepultus est in inferno. Elevans autem oculos suos…*")로 새 문장을 시작하는 것은 흥미 있다. 그런 읽기에 하데스가 고통의 장소임을 암시하는 것은 전혀 없다.

⑤ 교황 다마소 Damasus 1 세가 기원 382 년에 히에로니무스 Hieronimus (Jerome)에게 요청하여 그리스어 신약성경과 70 인역 Septuaginta 구약성경을 대중 라틴어로 번역하게 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통이 하데스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면, 의도적으로 불 못, 둘째 사망, 처벌의 장소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14). 그 구절에서 첫 번째 사망과 하데스는 불 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이 두 번째 사망으로 알려진다. 두 번째 사망은 첫 번째 사망과는 달리 비록 영원한 고통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참으로 고문과 연관된 보복의 장소이다(요한계시록 14:10; 20:10). 예수께서 죽은 자들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데스**"를 암시하신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선한 자들이든 악한 자들이든 가게 되는 휴식과 침묵의 장소로 일컬어지는 첫 번째 죽음의 하데스, 즉 예수님 그 자신도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갔던 장소인 그 첫 번째 죽음의 하데스와 완연히 구별된다(사도행전 2:31). 죽음과 하데스가 불 못에 던져질 때 (요한계시록 20:14) 모든 죽음이 폐

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불못 자체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21:8), 따라서 죽음은 새로운 형태로, 불태움의 장소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적 이미저리?

물론 죽은 자들 사이의 대화 전체를 시적 이미저리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슷하게 이사야서 14:11 에서도 죽은 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살해된 자"들이 문자 그대로 움직이면서 말하는 것으로 그 누구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검토하는 이 비유는 비록 바리새인의 언어가 효과를 위해 차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탈신체화된 영의 생존이라는 플라톤적 견해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 손가락, 혀에 대한 언급인데, 비록 전통적 신학은 거의 언제나 이 이야기를 사후 상태에 대한 교리의 근거로 삼지만, 여기에 탈신체화된 "영혼"의 생존을 암시하는 것은 없음을 보여준다. 부자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아브라함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완전히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너무 지나친 것이 된다.

이 비유를 널리 사용하여 죽음 즉시 뒤따르는 보상과 형벌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2 세기초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종말론적 전망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캐논 구지 Canon Goudge 의 말, 즉 기독교 교회에 로마와 그리스

사상이 침투한 것은 “교리 상으로나 실제 상에서 우리가 결코 회복하지 못한 재난”이라는 진단으로 돌아가게 된다. 미래에 대한 기독교 전망의 변형은 부활과 파루시아 교리에 대한 위험한 간섭을 수반했다. 성경 기획에서 부활 후와 파루시아라는 사건들보다 “앞서서 일어나는 것”은 신약성경의 종말론적 구조의 붕괴를 가져왔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독교 메시지의 바로 그 중심에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을 현재로 바꾸는 그 같은 경향이 1914 년 파루시아 종파 신학[여호와의 증인]에서, 일부 복음주의 진영들에서는 환난전 휴거 rapture 로 재출현한다.[12] 죽음 직후 영혼의 생존 교리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루시아 때 실현될 종말론적 왕국으로 주로 보는 신약성경과 달리 단지 신자들의 현재 “마음 속에서의 통치”로만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자유주의 경향이 있다. 모든 경우에 부활의 중심 교리는 공격을 받는데 (그것은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 – 고린도 전서 15:12; 디모데후서 2:18), 그리고 그와 함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교리도 공격을 받는다.

십자가 위의 도둑

누가복음의 한 구절이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의 날에 자신과 함께 십자

---

12 종말론적 미래를 현재로 이전하려는 비슷한 시도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2:18 참조.

가 위의 도둑도 천국에서 즉시 임재하리라고 기대하셨다는 증거로 제시된다. 그와 같은 해석과 관련된 극복할 수 없는 난제들이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앨런 리처드슨 Alan Richardson 은 이 성구를 일반적인 신약성경 견해와 모순되는 방식으로 읽는 것에 대해 주의를 준다 (『신약 신학 개론』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heology*, p.346).

마찬가지로 얼 엘리스 E. Earle Ellis 도 일반적인 해석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고, 인간과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신약성경 견해와도 다르다"(『누가에 대한 신세기 성경 주석』*New Century Bible Commentary on Like*, p. 269)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의 삶은 그의 미래의 부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20:27-40 을 참고하도록 바르게 인도한다. 우리의 번역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도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노니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도둑에게, **부활과는 별도로**, 천국의 자리 (그리스도만이 가신 것으로 일컬어지는 그 자리, 히브리서 4:14)를, 사도행전 2:34 에서 "아직 천국으로 승천하지 않았다"고 하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보다 앞서서 제공하셨다고 이해해도 되는가?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마태복음 12:40)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기대하셨는가? 베드로가 인용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예언에 의하면 부활 때까지 그가 하데스에 있게 되는데 (사도행전 2:31)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에 낙원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의 부활이 있었던 일요일에도 그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요한복음 20:17).[13]

전통적 기획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시도들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해석을 포함한다. 그런 해석에 의하면 낙원은 하나님 아버지 면전[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세계에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낙원은 땅의 중심이 아니라 복원된 에덴동산에서 발견되는데, 그곳은 생명나무를 담고 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요한계시록 2:7; 22:2). 아무도 생명나무가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자라고 있다고 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도둑에게 하신 약속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누가복음 23:43 에서의 구두점에 있을 수 있다. 문자적 행간 번역 Interlinear Literal Translation 의 편집자인 조지 R. 베리 George R. Berry 는 "그리스어 텍스트에서 구두점에 대한 권위는 어디에도 없다." 여기서 "오늘"로 번역된 그리스어 부사는 LXX [70 인역 Septuaginta]와 신약성경에서 221 번 등장한다. 이 중 170 건에서 그 부사는 수식하는 동사를 **뒤따르며** 종종 심대한 엄숙성의 진술들을 수반한다. 그렇게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나는 오늘 너

---

13 낙원이 하데스에 있었다는 제시는 성경에서 지지를 찾을 수 없다. 낙원을 하데스에 설정하는 것은 예수와 도둑이 함께 둘 다 죽어 단지 3일 동안만 하데스에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부활 때 예수님은 도둑을 낙원에 남겨 둔 것이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부활되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23).

에게 말한다," "나는 오늘 증언한다"와 같은 표현들을 본다. 신명기 6:6, 8:11, 10:13, 11:8, 17, 23, 13:8, 19:9, 27:4, 31:2 에서 예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 23:43 에서의 구두점을 다음과 같이 찍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 "진정으로 오늘, 내가 당신에게 말하노니,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바울은 사도행전 20:26 에서 비슷한 구문 변화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몇 개의 비교적 초기 사본들은 누가복음 23:43 에서 우리가 제안한 위치에 쉼표를 넣는다.[14]

도둑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대답은 구두점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의미가 된다. 그 도둑은 예수님이 그의 왕국(의 권능) 속으로 들어왔을 때, 즉 파루시아 때, 왕국이 영광으로 드러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님의 진술은 도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날 왕국의 도래보다 앞서서 그 도둑이 미리 기억된다는 것을 확신시킨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미래 왕국[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을 것이다.

---

14 『신약성경』*Das Neue Testament*, 빌헬름 마이클리스 Wilhelm Michaelis 크뢰너 베르라그Kröner Verlag 번역, 1934년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언젠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그 문장의 첫 부분에 속한다.

요한복음 11:26

때때로 요한복음 11:26 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즉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즉각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된다. 그렇게 번역되면 이 진술은 그 앞에 나오는 말과 충돌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살 것이다." 요한복음 5:24 에서 예수님은 신자가 다가오는 시대[15]에서의 생명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날에서의 부활의 필요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40). 마지막 날의 부활은 다가오는 시대의 삶과 관련이 있다. 부활 주제는 39, 44, 54 절에서 일종의 합창으로 되풀이된다. 무덤으로부터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으로의 부활을 요한복음 5:29 이 분명하게 가르친다. 이 구절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요한복음 11:26 이 문자 그대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맥하일 A.H. McHeile 의 『성 바울의 빛에 비추어 본 신약성경 가르침』New Testament Teaching in the Light of St. Paul, p.268 과 함께). 즉 "살면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시대에 *eis ton aiona.* 우리는 8:35 에서 유사한 것을 본다. 즉 "종은 영원

---

15 AV에서의 "영생"의 적절한 표현은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이다. 바라트Barratt의 『요한의 복음서』*Gospel According to John,* p.26, 179; 빈센트 테일러Vincent Taylor의 『마가에 대한 논평』*Commentary on Mark,* p.426; 나이젤 터너Nigel Turner 『기독교 단어들』*Christian Words*, pp. 455ff 참조.

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eis ton aiona*—AV "영원히 남아있지 않으리라").[16]

부활하기 전에 살아있는가?

죽은 자들이 부활 전에 살아 있다는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때때로 성경의 세 구절이 검토의 대상이 된다. 사무엘상 28 장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이른바 죽음 이후의 사무엘의 모습이라고 불리는 존재의 출현을 다룬다. 악령의 도움으로 영매가 사무엘로 가장을 할 수 있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사울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28:6), 주님이 "혐오"로 금지했던 관행들을 사용하여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어쨌든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땅으로부터 승천하는 신들"과 "망토로 뒤덮인...노인"을 보았던 것은 영매 혼자였다. 전체 이야기는 사기 사건처럼 보이며 역대기상 10:13 에서의 논평은 원본으로 읽으면, 사울이 자문을 구했던 존재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유령이라기보다 친숙한 영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사무엘은 탈신체화된 영혼이 아니었다.

변형 transfiguration [누가복음 9:28-36 에서의 그리스도의 변용 혹은 변

---

16 그 대신으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해지는 사람들은 파루시아 때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것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15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했다.

모]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 이 사건은 환상 (마태복음 17:9)으로 묘사되며 요한의 계시록에서 성취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비전과 같이 모세와 엘리야의 실제 생존에 대한 진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이 예수님, 그 첫 열매보다 앞서서 불멸성으로 부활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히브리서를 쓴 필자는 모세와 예언자들을 포함한 모든 구약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약속된 보응을 받지 못한 채 죽었다고 생각한다(히브리서 11:13, 39). 베드로는 변형을 파루시아에 대한 환상 (베드로후서 1:17, 18)으로 이해한다.

때때로 주장되는 것은 부활에 관한 예수와 사두개인들 사이의 논의가 예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 전에 살아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의 요점을 놓친 것이다. 그의 목표는 부활의 절대적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 족장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죽은 상태이므로) 미래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29-33).

제 6 장
하데스와 사도적 신조

우리의 목적은 세상을 떠난 인간의 영 [혹은 영혼]이 죽음 직후 처벌이나 보응을 받게 되는 장소를 하데스라고 보는 전통적인 관념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독교 종교를 공언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하데스를 몸에서 분리되어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한 장소로 변형한 것은 신약성경 이후 시대였다. 그렇게 성경적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리스 사상에 의해 훼손되었다.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확인은 원래의 이른바 사도적 신조 [사도신경] Apostolic Creed⑥에 추가된 부분에서 발견된다.

⑥ 사도신경은 기원 2 세기 이후 형성된 로마 신조 Old Roman Creed 에서 유래된 기독교의 신앙고백문으로서 성경에는 없다. 기원 381 년에 채택된 니케노-콘스탄티노폴리탄 신조 Niceno-Constantinopolitan Creed 보다 짧은 것으로서 삼위일체주의 Trninitarianism 를 명시한다. 한국어 번역의 경우 천주교, 상공회, 개신교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번역 상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천

주교),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만에...”(성공회), “장사한지 사흘만에 ...”(개신교)를 들 수 있다.

빙검 Bingham 의 『그리스도 교회의 고대 풍습들』 *Antiquities of the Christian Church* 의 10 권, 3 장, 7 절에 따르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은 오래전부터 신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휴식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었다.” 신조의 원래 형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상황을 정확한 순서로 열거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혔다. 셋째 날 그는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 단계에서 하데스로 내려가는 것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거의 400 년 후에 우리는 “그는 하데스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아퀼레이언 신조 Aquileian Creed [Aquileia 는 고대 이탈리아의 도시명이다]에서 사용된 것을 보는데, 그러나 그 신조에는 “그는 묻혔다”라는 문구는 나타나지 않는다. 피어슨 Pearson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아퀼레이언 신조, 이 기사 [하데스로의 하강]가 처음 표현된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장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의 말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는 하데스 (인페르노 *Inferno*)로 내려 갔다.’ 그곳에서 비록 로마와 동방의 신조에 이 말들이 없어도 **그러나 ‘매장’이라는 단어가 그것들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신조에 이 단어들을 넣는 첫 번째 의도는 단지 우리 구주의 매장을 표현하기 위한 것, 즉 **그의 몸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다’(“신조에 대한 피어슨의 견해”Pearson on the Creed, 5 항, 콘스타블 H. Constable 『하데스 혹은 중간

상태』Hades or the Intermediate State, p.323ff 에서 인용. 필자 강조).

그와 같이 로마 신조에는 "매장"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하데스로 내려갔다"는 것은 생략되었는데, 한편 아퀼레이언 신조는 그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매장"은 생략했다. 함축된 의미는 이 시점에서는 하데스로의 하강이 **무덤에 묻히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새로운 관념이 교회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즉 영혼을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실재의] 인간으로 보는 플라톤적 관념이 그것이다. 다시 한 번 신성한 말씀에 대해 반대하는 뱀이 교회를 위협했다. "네가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 그 선천적 불멸의 슬로건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교한 철학을 가장하여 기독교 신학에 은밀하게 소개되었다. 플라톤이 성경을 대신하고 있었다. 오스카 쿨먼의 유명한 문구, 즉 "고린도 전서 15 장은 파이도 Phaedo [On the Soul]를 위해 희생되었다."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 적이 잠입했다.

플라톤의 승리

중간 상태에 대한 교리는 불멸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부활에 대한 성경적 교리와 혼합되었다. 영혼은 하데스로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했다 (사도행전 2:31). 그러나 영혼은 죽을 수 없는 것으로 상정되므로, 하데스는 무덤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몸만 무덤으로 가야하고, 한편 살아남은 영혼은 완전히 의식을 지닌 채로 하데스로 간다 (나중에 의로운 자들은 천국으로 간다). 신조의 진술은 새로운 믿음을 반영하도록 조정되

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 진술이 하데스로의 하강에 대한 아퀼레이언 공식에 추가되었고, 플라톤이 승리했다. 테오필락트 Theophylact [917-956 콘스탄티노플의 에큐메니칼 총 대주교]의 짧은 문장이 새로운 신학을 요약한다. "하데스와 죽음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데스는 영혼들을 담지만 죽음은 몸들을 담는다. **왜냐하면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이다**" (테오필락트 Theophylact, 어셔의 답변 Usher's Answers ch.8 인용).

플라톤이, 침례도 받지 않은 채, 그리스도 안으로 통합된 효과들은 20세기 신학의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우리의 목적은 성경적 신조를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플라톤적 [영혼] 생존의 거짓말로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진실로 되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약성경 문서들이 가득 포함하고 있는 종말론적 기획이 억압당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성경의 **하데스/스올**은 죽은 자들의 세계, 즉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욥기 3:17)를 지시한다. 죽은 자들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17](다니엘 12:2) 것인데, 두려운 단어들인 게헨나 *gehenna* 또는 불의 게헨나 *gehenna* of fire 는 악인들에 대한 **미래의** 처벌 장소를, 즉 파루시아 때 (그 때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혹은 천년 기간 이후 심판의 부활에서의 처벌 장소를 묘사한다 (요한계시

---

17 우리는 이것이 무의식적인 잠만을 의미한다는 화이틀리D.E.H. Whiteley의 발언을 흥미를 가지고 주목한다 (『성 바울의 신학』*Theology of St. Paul*, p. 266). 그러나 분명히 다니엘 12:2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 교리를 위한 고전적 장소*locus classicus*이다.

록 20:11-15). 인간의 자연적인 불멸성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면 성경연구자들은 왕국에 있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의식을 지닌 채 끝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끔찍한 교리에 아마도 전념할 것이다. 첫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개념은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비성경적 교리에 따른 것이다.[18]

캔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 박사Dr. William Temple (1882-1944)는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영원한 고통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개인 영혼의 자연적인 불멸성에 대한 그리스적이고 비성경적인 개념을 수입하지 않았다면, 그 개념을 유념하면서 신약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그들은 신약성경으로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고문이 아니라 영혼소멸에 대한 믿음을 이끌어냈을 것이다"(『기독교 신앙과 삶』 *Christian Faith and Life*, London: SCM Press, p.81).

---

18 "시대에서 시대까지 영원히" 확장된 고문은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게 약속된다 (요한계시록 20:10). 예수님은 게헨나에서 영혼이 멸망되는 것에 관해 말한다 (마태복음 10:28).

제 7 장
고대와 현대 학자들의 증언

이레네우스와 저스틴 마터의 잊혀진 정통

기원 2 세기의 초창기 그리스 신학자들이 우리의 신학 체계에 아주 확고해진 중간 상태라는 비성경적 견해에 대해 비판했던 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영혼이 죽음 이후 탈신체화된 형태로 살아남아서 신의 면전에서 완전히 의식을 지니고 있는데, 몸에서 분리된 그 영혼이 진정한[실재의] 인간을 나타낸다는 관념은 저스틴 마터 Justin Martyr [c.100-c.165]와 이레네우스 Irenaeus [c.130-c.202]에 의해 위험한 이단으로 거부당했다. 다음 발췌문들은 그들을 대변한다. 두 저자들은 모두 그리스 철학의 공격에 대항하여 부활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옹호했다.

이레네우스: 이단 논박

"정통파로 여겨지는 일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의 고양高揚을 위해 미리 예정된 계획을 간과해 버리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훈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도 무지하다. 따라서 그들은 이단적인 의견들을 접하게 된다. 이단자들은 ... **죽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늘 위를 통과할 것이라고** 긍정한다. 따라서 **통일체로서의**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활을 거부하고 기독교 기획으로부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기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만약 이 일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다면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주님 그 자신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숨을 거두자 마자 즉시 높은 곳으로 떠났고** 그의 몸은 땅에 남았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3일 동안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3일 낮 3일 밤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마태복음 12:40)… 다윗은 그에 대해 예언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은 내 영혼을 지옥의 밑바닥으로부터 구출했다.' 셋째 날에 일어나자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요한복음 20:17)… 그러면 이 사람들, 지상에 몸을 두고 떠나는 그들의 속사람이 슈퍼천체적 supercelestial 장소로 승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주님이 **죽은 자의 영혼이 있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떠나셨고'(시편 23:4), 그리고 그 후에 몸으로 일어났으며 부활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의 영혼들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고…**부활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며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받고 **온전히**, 신체적으로, 주님이 일어나셨듯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의 스승이 **즉시** 하늘로 오르시지 않고 자신의 부활의 시간을 기다렸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우리의 부활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 정통파 사람들의 의견이 이단적 담론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의인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썩지 아니함의 시작**인 지상 왕국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이 왕국을 통해 합당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신성한 본성의 참여에 익숙해진다"(Book 5, chs. 31, 32, *Ante-Nicene Fathers*, Eerdmans, Vol.1,pp. 560, 561).

저스틴 마터: 트리포와의 대화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지만 부활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감히 모독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으며 **그들의 영혼은 죽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그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믿어서는 안된다.** 그가 그것을 올바르게 고려한다면 사두개인들 Sadducees 과 지니스태 Genistae 의 유사한 종파들, 메리스태 Meristae, 갈릴리언들 Galileans, 헬레니스트들 Hellenists, 바리새인들 Pharisees, 뱁티스트들 Baptists 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단지 불릴 뿐이며 입술로만 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듯이, 그들의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점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인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 예루살렘에서의 천 년에 대해 확신한다. 예루살렘은 선지자 에스겔과 이사야와 다른 사람들이 선언했듯이 건축되고, 단장되고, 확장될 것이다" (『트리포와의 대화』 *Dialogue with Trypho*, ch.80, *Ante-Nicene Fathers,* Vol.1, p.239).

학자들의 증언

이들 초기 신앙 대변인들의 말은 앨런 리처드슨 Alan Richardson, DD 의 발언에 의해 우리 자신의 시대에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성경 필자들은 창조된 질서의 존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기인하고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신념을 굳게 붙들고 있어서 죽음 이후의 삶을 탈신체화된 존재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을 것"– 고린도후서 5:3)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인간 생명이었던 몸과 영혼의 친밀한 일체의 새로운 조건 하에서의 쇄신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죽음은 **통일체로서의 사람의 죽음**으로 생각되었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썩지 않음, 불멸성과 같은 문구들은 다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불멸성을 지닌"(디모데전서 6:16)과 같은 구문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데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인간은 그 자신 안에 불사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지만, 만약 그가 죽음의 파괴적인 힘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죽음을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마치 덮는 의복처럼 죽음을 제쳐 놓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15:53, 54).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위한 이 가능성 (디모데후서 1:10)이 생명을 얻었고 인간 생명의 보편적 특징인 부패 (로마서 11:7)가 효과적으로 극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확증된다 (『성경의 신학 단어 책』*A Theological Word Book*, pp. 111, 112, 강조 필자).

플로이드 필슨Floyd Filson은 그리스 철학의 위험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학에 침투했는데, 따라서 신약성경에 의해 정죄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약성경의 주된 유사성 [친족관계]은 이방인 정황과는 다르다. 오히려 유대인의 유산과 환경과 같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전통적 신조들과 신학에 의해 인도되어 이방인적, 특히 그리스적 개념들이 지시하는 용어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늦어도 2세기가 지나기 전에 변증자들Apologists의 체계적인 노력이 시작되어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 철학으로 최고를 완성했다는 것을 안다.... 신약성경에 대한 주의깊은 연구는 신약성경을 이방인적 정신을 표현하는 문서 그룹으로 여기는 어떤 경향도 막아야 한다. 이 책[신약성경]의 친족관계는 주로 압도적으로 유대교와 구약성경에 있다....,

신약성경은 항상 이방인적 컬트와 철학들에 대한 비승인을 대개 무뚝뚝한 비난과 함께 말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교도 세계에 대한 유대적 고발과 일치한다 (『신약성경 환경에 대한 그 자체의 비판』*The Testament Against its Environment*, pp. 26, 27).

우리의 생각에 스며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은 폴 알토스 박사 Dr. Paul Althaus 의 저서 『마틴 루터의 신학』*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pp. 413, 414)에 잘 설명되어 있다.

초대 교회의 소망은 마지막 날의 부활을 중심으로 했다. 죽은 자들을 먼저 영생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고린도전서 15 장; 빌립보서 3:21). 이 부활은 몸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일어난다. 바울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죽음을 통일체로서의 사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이해한다. ... 원래의 성경적 개념들이 헬레니스틱 영지주의적 이원론에서 온 관념들로 대체되었다. 통일체로서의 사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활에 대한 신약성경 관념은 영혼의 불멸성론에 양보해야 했다. 마지막 날도 또한 그 중요성을 잃는다. 왜냐하면 영혼이 이보다 오래 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종말론적 긴장은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강하게 향하지 않는다. **이것과 신약성경 희망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크다** (강조 필자).

다양한 성경 전문가들이 우리의 발견을 확인한다.

유명한『통역자의 성경 사전』*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어떤 성서 본문도 죽음의 순간에 영혼이 몸과 분리된다는 진술을 승인하지 않는다"(Vol. 1, p. 802).

벌링거 EW Bullinger 의『성경을 즐기는 방법』*How to Enjoy the Bible* 의 고린도 후서 5:8 에 대한 해설:

"누군가 특정 단어를 골라내고 범위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구절의 다른 단어들을 무시하고 '몸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그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마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활 없이 가능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로드니 클랩 Rodney Clapp 의『교차로의 가족』*Families at the Crossroads* (95, 97 쪽):

"그리스와 중세 기독교 사상에 따라 우리는 종종 영혼과 몸을 철저히 분리하고 개별 영혼이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강조한다. 더구나 우리는 탈신체화된 영혼이 천국으로, 더 쾌적하고 완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탈출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기독교의 희망을 개인적인 일로, 분리된 영혼이 하늘로 날아가는 문제로 잘못 상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 그 어떤 것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마틴 루터:

"성경에는 전도서 9:5 ('죽은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보다 잠든 죽은 자들의 장소, 우리의 상태와 조건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장소에 대해 더 강력하게 말해주는 곳이 없다. 성도들의 소명과 연옥의 허구에 대항하여."

감리 교회 창립자인 존 웨슬리 John Wesley,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설교』*Sermon on the Parable of Lazarus*:

"참으로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의 영혼은 육체에서 나오자마자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이 의견은 하나님의 신탁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마리아에게 부활 후에 말씀하셨다. '날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셜리 거스리 Shirley Guthrie, 『기독교 교리』*Christian Doctrine*, p.378: (거스리 박사는 컬럼비아 신학대학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의 조직 신학 교수이다.) 다음과 같이 인용된 그의 책은 "고전적 텍스트"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전망으로부터 죽음을 충분히 심각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릇되게도 낙관주의적인 하나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 우리가 비판하고 거부하려는 입장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위한 기독교인의 기초라고 믿는 것이다. …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성경적인 기독교적 희망을 옹호하기 위해 그것을 거부한다…**우리가 지칭하는 것은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믿음이다.** 이 교리는 성서 필자들 자신들에 의해 가르쳐진 것이 아닌데 기독교 교회가 탄생한 고대 세계의 [이교도적] 그리스와 동양 종교들에 공통된 것이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중 일부가 그것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것에 비추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생각에 도입했다. 그 이후 우리와 함께 계속 머무르고 있다. 캘빈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개혁 교회의 고전적인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고백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교리에 의하면, 내 몸은 죽지만 **나 자신은 정말로 죽지 않을 것이고**... 죽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 불멸의 영혼이 내 필멸의 몸을 탈출한다는 것이다. 내 몸은 죽지만 **나 자신은 계속 살아가고**, 내가 그곳으로부터 왔고 내가 정말로 속한 영적 영역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오로지 성경에만' 두기로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불멸성에 토대를 둔 미래를 위한 전통적 희망을 거부해야만 한다. ... [죽음]은 우리의 불멸의 신성한 부분이 어딘가에 살기 위해 떠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이 우리를 떠났고 우리 삶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죽었고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따르면… 내 영혼은 내 몸처럼 인간적이고, 피조물적이며, 유한하고 **필멸**이다. 그것은 단순히 내 몸의 생명이다… 우리의 희망이 우리 안에 내장된 불멸성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다."

로버트 캐폰 Robert Capon, 『심판의 비유』*Parables of Judgment*, Eerdmans, 1989, p.71 :

"우리가 부활과 심판의 주제를 다루는 동안의 마지막 신학적 요점.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을 옹호의 큰 성사로 보는 일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은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불행한 집착이다. 이 교리는 교회가 그리스 사상의 넓은 세계로 들어간 이후로 우리가 빠져 있는 비히브리적 철학적 인습의 일부이다.

[즉각적인] '사후의 삶'이라는, 수반되는 관념과 함께 우리에게 영혼의 불멸성론은 문제 외에는 거의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두 개념 모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진지한 수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심판의 유일한 근거가 그것이다."

얼 엘리스 교수Prof. Earle Ellis,『신약 역사에서의 그리스도와 미래』(Brill, 2000) :

"본질적인 인간 (영혼/영)이 육체적 죽음에서 살아남는다는 플라톤적 견해는 누가의 그리스도론과 그의 역사에서의 구원 신학에 대해 심각한 함의를 지닌다…종말론의 경우 그것은 기독교적 희망의 플라톤화를, 시간과 물질로부터의 속량을 나타낸다. 누가는 반대로 개인의 구원 (그리고 상실)을 마지막 날에 시간과 물질 속에서의 부활에 설정한다. 그는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를 '죽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자'라고 말하며 '영광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모델로 만든다.

"인류학적 이원론이 교부교회의 사유에 침입했는데, 내 생각에는 주로 클레멘트 Clement와 오리겐 Origen이 만든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의 장대한 종합**과 함께 그렇게 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지상에 설립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희망을 무색하게 해 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성경의 기독교를 특징짓지 않았는데, 기독교 교부들처럼 아테네에서 연마된 렌즈로 텍스트를 읽을 때만 누가에게서 찾을 수 있다"(p. 127).

"… 죽음은 개인적인 구원의 성취가 아니고, 죽음 동안 사람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보살핌 아래 남아 있다 ... (그러나) 죽은 그리스도인은 시간 속에 머무르지만 시간을 세지 않는다. 그들의 죽음과 이 시대의 마지막 날 부활 사이의 개인 존재의 틈새는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시계의 한 번 째깍거림이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은 단지 미래에 도래할 한 순간에 불과하다.

‘중간 상태’는 산 자들이 죽은 자들에 관하여 경험하는 것이지 죽은 자들이 산 사람들이나 혹은 그리스도에 관해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아테네에서 연마한 렌즈를 지닌 사람들, 즉 기독교 전통 속에 있는 다수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본다. 그들은 사람의 한 부분, 영혼은 존재의 소멸에 종속되지 않는 (따라서 자연계의 한 요소가 아닌)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몸이 죽을 때 그것은 몸이 없는 행복으로 ‘분리’되거나, 그 주제의 한 변형으로서 죽을 때 부활이 있고 그때 신체적 몸이 내부에서 이미 형성된 영적 몸으로 교환된다고 가정한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 장과 함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주어진 프로그램을 파괴할 것이다].

“비록 그들에게는 많은 전통적인 뿌리들과 애착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 신학들은 바울의 역사 속에서의 구원 종말론을 심각하게 오해했다. 바울이 몸을 사람으로 여기고 사람을 신체적 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는 몸의 부활을 주장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때로 설정하는데, 그때 사람의 속량이 전체 물리적 우주의 변형에 의한 구원과 결합하고 그것의 한 부분이 된다. 신자의 변형된 신체적 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 [파루시아 때]에 의해 땅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변형된 신체적 몸과 창세기 창조의 [아직] 최초 생명이 없는 몸과 마찬가지일 것이다’(pp 177, 178).

호소

우리는 우리가 전수받은 전통과 성경 가르침 사이의 차이는 진리와 허위 사이의 차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영지주의의 폐해 사이의 차이와 연관된다고 주장한다.[19] 너무나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실수의 효과는 신앙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인용한 권위있는 사람들은, 지면 부족으로 여기에 포함시키지는 못하지만 역시 비판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이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성경 해설자들이 뒷받침하는 의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분명히 우리 시대의 [기독교] 종교와 신약성경을 분리하는 교리적 차이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

전통적인 신학사상이 아무리 오랫동안 대중의 승인을 얻었을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안전한 가이드라고는 할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신학 체계가 (마리아가 하늘에서 중재자로서 완전히 활동적이라는 믿음을 포함하여) 죽은 자들이 하늘에 살아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여 세워졌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결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사도행전 2:34),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천국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3:13). 그리고 구약성경의 영웅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히브리서 11:13)로 말해진다.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거짓말이 정확히 인간의 선천적 불멸성을 지원했던 것이라는 점은 무척 의미심장한 일이다. "네가 반드시 죽지 않으리라"고 선언한 존재는 뱀, 사탄이었는데, 그것은

---

19 이른바 "그노시스" 로 잘못 불리는 것의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전서 4:16).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20).

“네가 [전인격체]가 반드시 죽으리라”(창세기 2:17)고 한 신성한 진술과 확연히 모순을 이룬다. 마리아와 성자들에게 하는 기도를 사도적 가르침과 화해시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녀와 성자들 둘 다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의식을 잃고 죽음 속에서 "잠들어" 첫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12:2; 요한복음 5:28, 29).

천국에서의 즉각적인 임재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 때의 부활에 대한 확신보다 더 위안이 된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근거를 두지 않는 강단에서 위로를 베푸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응답한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탁에 따라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엄숙한 경고가 있다 (예레미아 23:16-18, 21, 22). 설교자가 자신이나 자신의 청중을 구원할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디모데전서 4:16). 그리고 의심의 여지없이 청중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과 구별되는, 그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그들의 목사에게 나중에 감사할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탐구자의 의무는 계시된 진리와 대립되는 인간의 전통의 틀 안에서 숭배하는 것은 헛된 숭배라고 하는 예수님의 불편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어야만 한다(마태복음 15:9).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4:24). 우리의 전통이 부활에 대한 기독교의 중심 교리와 부활 이후 시작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포함하여 참으로 성경적 종말론 전체를 모호하게 만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심대하게 중

요한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성경적 신앙의 회복을 위해 호소한다.

교회 역사의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임무는 명확하다. 신약성경 시대 직후에 획득되었으며 성경의 순수한 믿음에 속하지 않는 외래 관념들을 우리의 전통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페이지들을 가로 질러 계시된 진리의 맑은 물이 웅장한 강처럼 흐른다. 불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며 그는 신성한 파멸할 수 없는 생명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믿는 자들과 소통하신다.

그러나 이 시냇물과 평행을 이루며 이교적 철학의 진흙투성이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신성한 본질이며, 영원하고, 몸보다 먼저 존재하고, 몸이 죽어도 살아남는 것이라는 철학이다,

사도들의 죽음 이후 이 두 흐름이 합쳐져 난류의 일체를 이루었다. 조금씩 인간 철학의 추측이 신성한 가르침과 혼합되었다.

이제 복음주의 신학의 임무는 양립될 수 없는 두 요소들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을 분리하며 [잘못된] 전통신학의 중심에 횡령자로 자리매김한 이교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 요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만이 오직 참된 것이고, 그것만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의 본성에 부합되는 것이다.[20]

---

20 앨프레드 바우쳐Alfred Vaucher, 『불멸성의 문제』*Le Problème de L' immortalité,* 1957, p.6.

학자들의 말

"나의 인상은 교회의 의견 일치가 신약성경의 증언을 충실하게 경청한 후에 형성되는 어떤 개념보다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기독교 외적 관념에 의해 여전히 더 많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닐 해밀턴 Neill Q. Hamilton, "지난 10 년의 마지막 일들"The Last Things in the Last Decade, 『해석』*Interpretation,* 4 월, 1960).

"기독교인들은 이제 인간의 본성과 미래의 처벌에 대한 수용된 견해들이 철학과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것인지 또는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들은 방대한 양의 현재 신학의 그 근원이 인간의 철학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다. 종교적 사유의 영역에서의 표상들은 그리스도, 그의 선지자들, 그의 사도들의 표상들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지만 악한 영의 표상들, 플라톤의 표상, 그리고 그 플라톤으로부터 자신들의 신학이 많은 정도로 유래된 다양한 교부들의 표상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다" (캐논 콘스타블 Canon H. Constable, 『하데스 혹은 인간의 중간상태』*Hades, or the Intermediate State of Man*, 1893, p.278).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하나의 존재양식에서 다른 존재양식으로의 이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파괴 그 자체, 존재가 비존재로 표류하는 것을 뜻한다. 기독교의 모든 사상가들이 생명의 완전한 파괴로 죽음을 보는 이 개념을 회피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들이 성공하는 경우 부활의 개념은 거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세이치 하타노 Seiichi Hatano, 『시간과 영원성』*Time and Eternity*, 1949, p.214).

“나는 교회가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고전적인 기독교적 대답을 되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것이 요즘은 (세상과 교회 모두에서) 불신된다기보다는 단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초기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는 불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이트 N.T Wright,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Surprised by Hope,* HarperOne, 2008, p.xii).

옮긴이의 말

나는 2020년 팬데믹의 와중에 이 책의 저자 앤서니 버저드의 『예수는 누구인가?』*Who is Jesus?*를 번역하여 출간했다. 출판사 부크크는 주문이 들어오면 인쇄하는 방식(Publish on Demand)이라서 출판비나 재고를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고 필요한 부수를 주문하면 며칠 내로 인쇄하여 보내주므로 편리한 점이 있다. 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저술출판 프로젝트로 『종교와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제목의 책 원고를 작성 중인데, "기독교와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챕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경과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 살펴보고 있다.

나는 교회나 성당에 다닌 적이 없지만 삼위일체론Trinitarianism, 영혼불멸Immortality of Soul, 영원한 지옥형벌 Eternal Torment in Hell 등이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것들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을 비판하는 『예수는 누구인가?』만이 아니라 영혼불멸과 영원한 지옥형벌을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보는 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Happens When We Die?*도 의심할 여지없이 이단의 책들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의 말과 같이 기독교 세계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집단에 의해 억압당한 하나의 정통신앙이 이단이고, 이른바 정통이라는 것도 싸움에서 이긴 하나의 이단이라고 보는 관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개신교의 목사로 일하는 친구와 제자는 내가 보내 준 『예수는 누구인가?』를 보고 빨리 정통 기독교로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걱정스럽게 반응

했다. 그러나 기독교와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해 흥미 있게 조사해 보면서 나는 영혼불멸설이나 지옥형벌설이 성경적 진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닌 제2의 아담 혹은 새로운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트랜스휴먼transhuman 혹은 긍정적인 뜻에서의 포스트휴먼posthuman의 이상을 이미 구현한 특별한 존재로 보는 것도 맥락에 따라 가능할 것이다.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은 인간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형시켜 인간의 지적, 신체적, 심리적 능력을 지대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긍정하고 그러한 향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상과 운동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을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윤리적 사용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이 땅을 새 땅으로 변형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인간의 교만*hubris*으로 보기 때문이고, 생명의 무한한 연장과 고통의 완전한 종식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테크놀로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인류가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되는 가설적 순간이라고 정의되는 "특이점"singularity 이후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유토피안 비전의 테크놀로지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초지성superintelligence, 초행복superhappiness, 그

리고 초장수superlongevity를 추구하는데, 죽음도 일종의 질병으로서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부분에서 보이는 구원론적soteological 비전과 일치한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구원론적 비전이 위로를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죽으면 몸을 떠난 탈신체화된 영혼disembodied soul이 천국으로 간다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그리스 사상의 영향으로 생긴 비성경적 교리라고 주장하는 이 책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Parousia과 그때에 있을 집단적 부활의 전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죽음 직후에 의식을 지닌 고인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면 유가족들에게 일종의 형이상학적 위안metaphysical comfort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나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금 무덤에서 비유적인 "잠"의 상태로 있다가 부활의 순간 새 생명으로 깨어나실 것을 상상해 본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고인들에게는 단지 아주 짧은 순간만 지나간 것이 되므로 숨을 거두신 순간이 곧 부활의 순간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삶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 5:28-29).